

2023 04 VOL. 194

김민준
+ 오
민준



서울시 자치구 소식



은평구·영등포구

서울 대표 벚꽃길 불광천에서 4월 2일부터 8일까지 불광천 벚꽃축제 <은평의 봄>이 열린다. 체험 및 전시 부스와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모든 시민을 맞이할 예정. 4월 7일 오후 7시에는 YB 밴드와 엑시트, YR 드로잉쇼를 포함한 공연이, 8일 오후 4시에는 금난새 지휘 뉴월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오후 6시에는 가수 박상민·양지은·다비치 등이 참여하는 무대가 마련됐다.

영등포구는 4월 4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로 및 여의서로 하루 한강공원 국회 축구장에서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최한다.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전면 개최하는 행사로, '다시 봄'을 주제로 개막 행사, 아트·푸드마켓, 전시·체험, 요트 투어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했다.



중랑구

중랑문화재단 웅기테마체험관에서는 매달 웅기공예와 한지공예 프로그램을 정규반과 일반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전통공예 체험으로, 유·아동과 성인 모두 즐길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매달 20일 오전 9시부터 중랑문화재단 웹사이트에서.

VIRTUAL INSANITY

2023. 3. 18. - 4. 14.
최현희 최낙준 + GHOST JUNG
신화상



서초구

서초문화재단이 첫 시즌 프로그램 <봄의 클래식 향기 PLUS SHOW>를 선보인다. '봄을 안고 연주하다'를 주제로 신인 아티스트와 청년 예술인이 무대에 올라 봄날의 기운을 가득 담은 선율을 선물한다. 공연은 4월 6일과 20일 오후 7시 30분 반포심산아트홀에서 진행된다. 한편,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에서는 4월 14일까지 <Virtual Insanity> 전시가 열린다. 가상현실의 수집 과정과 현실의 수집 과정을 비교해 날이 갈수록 대두하는 가상현실 담론과 현현하게 휘발하는 몸의 담론 사이에서 현존성을 주목하고자 한다.



성북구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집'이라는 의미의 성북 예방재단에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과 전시·공연을 준비했다. 매달 둘째·넷째 토요일에는 전통 예절과 우리 가락을 배우는 '한옥 교실', 매주 수요일에는 인문학 강좌와 전통 보자기 만들기 수업인 '한 땀의 여유', 매달 셋째 금요일에는 '6시 예방재: 인문 예술 살롱', 넷째 토요일에는 '차이야기: 차 한 잔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등 프로그램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금천구

금천구립독산도서관 1층 야외 열람실에서 4월 26일 오후 5시, 클래식 음악회 <도서관, 봄의 소리>를 개최한다. 요한 슈트라우스 '봄의 소리 왈츠', 하이든 '세레나데', 크라이슬러 '사랑의 기쁨' 등 봄을 주제로 한 클래식 음악 명곡을 앙상블 뽀빠연주팀의 현악 4중주로 감상하며, 봄과 관련한 도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봄을 기다리는 지역주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도봉구

도봉문화재단 간송옛집에서는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옛 그림을 프랑스 자수 기법으로 표현해보고, 다양한 생활용품에 응용하는 수공예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는 4월 14일 개강해 10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되며, 정규 강좌 15회 이후 동아리 활동 10회와 작품 전시로 이어진다. 선착순으로 12명을 모집하며, 3월 31일부터 유선으로 신청받는다. 참가비는 10만 원.



중구

가드닝과 플랜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을지로 소재 정원지원센터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반려 식물과 정원, 가드닝에 관심 있는 중구민과 중구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원예 교육을 실시해 시민 주도 녹색문화를 확산하고자 설립된 곳이다. 이곳에서는 마을정원사, 가정정원사 교육 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회성 체험 행사도 연다.



연극 <파우스트>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인류의 역사·철학·종교 등을 대변하는 깊이를 보여주는 고전 중의 고전,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전 생애를 쏟아 집필한 대작 '파우스트'가 LG아트센터 무대에서 다시 태어난다. 유인촌·박해수·박은석·원진아 등 실력과 배우들의 참여와, 고전의 현대적 해석에 탁월한 감각을 보여준 양정웅의 연출에 이목이 집중된다.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 LG아트센터 서울 1661.0017

<판소리 레미제라블-구구선 사람들>

2017년 창단한 이래 새로운 판소리 양식과 참신한 창작 과정 발표로 전통예술 신을 놀라게 한 공동창작집단 입과손스튜디오가 무대 위에 '판'을 연다. 언제나 100에 가깝지 못하고 99에 그치고 마는 모자란 세상과, 역사 속에서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 '세상은 불완전한 한 척의 배'라는 설정으로 원작의 서사와 인물을 밀비탕에 두고 이 시대의 불쌍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4월 8일부터 22일까지
두산아트센터 Space111 | 070.8848.0124



공연



<다페르투트 퀴드>

대학로극장 퀴드가 올해 첫 공연 <다페르투트 퀴드>로 관객을 맞이한다.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독특한 무대 미학을 선보여온 적극 연출의 신작으로, '창작초연 중심 1차 제작·유통극장' 퀴드에서 자체 제작하는 프로덕션이다. 신작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대립의 공존'으로, 적극 연출의 '다페르투트 스튜디오'에서 소환한 요소를 새롭게 변형하고 압축해 퍼포머와 표현하기도 하고, 같은 토대에서 출발했지만 서로 충돌하는 학문의 세계를 담아내기도 한다. 관객 또한 '대립의 공존'의 일부가 된다.

4월 16일까지 | 대학로극장 퀴드 | 1577.0369



국립현대무용단 <카베에>

1년간 리서치와 워크숍을 거쳐 완성된 안무가 황수현의 신작이 베일을 벗는다. 빈 곳, 구멍, 움푹 들어간 모양, 둥굴 등 어둡고 패인 공동을 의미하는 제목 '카베에'를 통해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감각들, 시각으로 지배되는 감각 체계에서 도외시되는 감각들에 주목하고자 했다. 또한 해오름극장 무대 위에 원형 객석을 설치해 관객과 보다 생생하게 에너지를 공유한다.

4월 7일부터 9일까지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02.2280.4114

©undercore/국립현대무용단

창극 법정 드라마 <홍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

창작 핵심 기지를 표방한 국립정동극장 세실은 열린 공모 프로그램 '창작ing-Stage on'을 통해 선정한 두 번째 작품 <홍보 마누라 이혼소송 사건>을 무대에 올린다. 홍보 부부의 이혼 소송 사건이라는 기발한 주제를 바탕으로 판소리 '홍보가'의 면면을 뒤를었다. 최용석이 극작과 연출을 맡고, 김윤희가 창작, 황호준이 작곡을 맡는 등 젊은 창작진의 의기투합이 기대를 모은다. 15세 이상 관람가.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 국립정동극장 세실 | 02.751.1500



국립오페라단 <맥베스>

국립오페라단은 베르디 탄생 21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한 시즌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올해 첫 정기공연인 <맥베스>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심취한 베르디의 명작. 지난해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로 호평을 받은 연출가 파비오 체레사와 메트 오페라 등 무대에서 활약하는 지휘자 이브 아벨이 호흡을 맞춘다. 맥베스 역에 양준모·이승왕, 레이디 맥베스 역에 임세경·에리카 그리말디, 방코 역에 박종민·박준혁이 캐스팅돼 세계 무대를 빛내는 성악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1588.2514

©원영재

전시



《SeMA-프로젝트 A》

미술의 역사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기록과 예술이 함께하는 미술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가 공사를 마치고 4월 개관한다. 현대 미술의 중요 자료와 기록을 수집·보존하고, 연구를 중심으로 전시와 공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공간이다. 전시·아카이브동(A동), 다목적홀동(B동), 커뮤니티·배움동(C동), 부설주차장(D동)으로 구성되며, 외부 공간과 옥상정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여러 동과 부지로 이뤄진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를 탐색해보는 프로젝트 《SeMA-프로젝트 A》를 통해 가장 먼저 공간을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

4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 02.2124.7400



《조선, 병풍의 나라 2》

용산에 새롭게 동지를 틈 지 5년을 맞이한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올해 첫 기획전으로 조선부터 근대기까지 제작된 병풍을 조망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공간의 배역으로서 병풍의 존재가 아니라 한 편의 작품으로서 그에 깃든 미술사적 가치와 의의를 되새기고, 한국 전통 미술의 다양한 미감을 전하고자 한 것이다. 전시는 사용 및 제작 주체에 따라 민간 병풍과 궁중 병풍으로 주제를 나눠 민간과 궁중의 문화적 특징을 견주어가며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뿐만 아니라 15개 기관의 소장품 50여 점이 출품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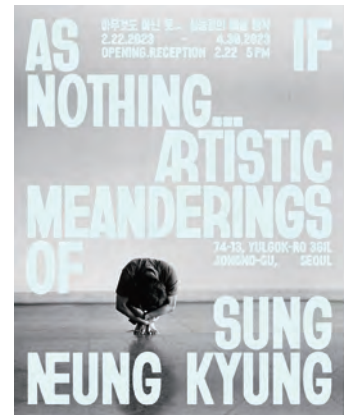
4월 30일까지 | 아모레퍼시픽미술관 | 02.6040.2345



《장영규: 추종자》

리움미술관은 지난해 9월부터 전관에 걸쳐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여러 공간 가운데 강당 라운지에서는 음악가 장영규의 사운드 작업 《추종자》를 만날 수 있다. 수호의 의미를 가진 돌 조각 박수와 사시사철 푸른 잎을 유지하는 대나무가 심어진 중정을 내다보는 자리에서, 단가와 판소리 다섯 바탕의 전수 과정을 담은 아카이브 음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것. 푸하하하 프렌즈가 협업한 의자와 테이블은 청각적 떨림을 몸 전체의 신체 감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어느덧 무선 이어폰이 익숙해진 시대에 직접 헤드폰 플러그를 꽂아 감상하는 음원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전수되는 판소리의 본질을 부각한다.

9월 3일까지 | 리움미술관 강당 라운지 | 02.2014.6900



《아무것도 아닌 듯... 성능경의 예술행각》

한국 미술 1세대 전위예술가 성능경의 개인전이 열린다. 이강용과 함께 1970년대 한국 미술을 풍미했지만, 1968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 55년 시간 동안 겨우 다섯 번째 열리는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 오프닝 퍼포먼스에선 숙 못 한 정만 남기고 못을 다 벗은 뒤 "젊은 몸만 몸이나, 늙은 몸도 몸이다"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백전노장을 보여줬다. '팔리지 않는 미술'을 해온 탓에 2009년에야 처음으로 작품을 판매할 정도로 뒤늦게 주목받았지만, 올해만 해도 국립현대미술관·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등 줄줄이 전시가 이어질 예정. 또한 세계적인 현대 미술 갤러리인 리만머핀과 전속 계약을 맺으며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4월 30일까지 | 백아트 갤러리
010.2174.2598**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실내악 축제인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가 올해로 18회를 맞이했다. '음악을 통한 우정'을 모토로 시작된 축제는 매년 4월과 5월 보름간 열리며 실내악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관객의 지평을 넓혀왔다. 백남준의 작품 <광합성>으로 장식한 포스터에서 알 수 있듯 올해 축제의 주제는 '다다익선: The More, The Merrier!'이다. 기존의 대규모 편성의 실내악에서 나아가 6중주와 8중주까지 많은 연주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실내악의 정수를 보여준다.

4월 26일 개막공연 <6중주 파파레>를 시작으로, 4월 27일에는 다양한 악기 구성의 4중주 작품 네 편을 선보인다. 31년 2월 모차르트 콩쿠르에서 우승한 아레테 파르렛이 출연할 예정. 29일 무대는 '베토벤의 SNS'라는 트렌디한 주제를 내걸었으며, 지난 해의 지난해 축제에서 사랑받은 작품을 모아 선보인다. 5월 1일과 5일에는 축제의 시그니처인 고객음악회가 열린다. 5월 2일에는 모든 실내악 레퍼토리의 중심에 있는 피아노가 주인공으로 나서며, 3일에는 내림마장조 7중주로 이뤄진 대규모 실내악 작품을 선보인다. 4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보물과 같은 실내악 곡을, 6일에는 어린이를 위한 알프호른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7일에는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비올라를 주인공으로 한 무대가 마련되며, 7일 폐막공연에선 8중주 작품 세 편을 연주할 계획이다.

다들여 공연장단 이차라 4월 8일부터 서울공예박물관·남산서울타워 광장·국립중앙박물관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프린트 페스티벌이 열려 음악의 기쁨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거라며 여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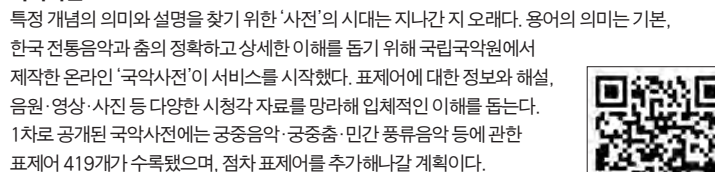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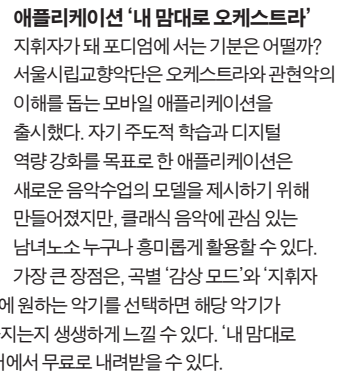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 세종체임버홀·예술의전당TBK챔버홀·윤보선 고택 외 | 02.720.3933



제5회 서울 탭댄스 페스티벌

마포문화재단은 4월 5일부터 9일까지 제5회 서울 탭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마포문화재단이 진행하는 M페스티벌 시리즈의 일환으로 2019년 첫 막을 올린 이래, 탭댄스라는 장르를 다양하게 변주하고 확장해왔다. 특히 올해는 공연 기획 단계부터 연출, 안무, 출연까지 여성 탭댄서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기존과는 다른 섬세한 연출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탭댄스 콘서트 (5월)을 시작으로, 탭댄스 콘서트 <밴드파라 댄스프로>(6월), 탭댄스 뮤지컬 <카펜터스>(7월), 제2회 서울 탭댄스 콩쿠르(9월), 그리고 처음 선보이는 탭댄스 경연 쇼인 <오버맨 탭댄스 콘서트>(8월)에 이르기까지 탭댄스의 화려한 세계를 만나볼 수 있다.

4월 5일부터 9일까지 | 마포아트센터 플레이맥 | 02.3274.8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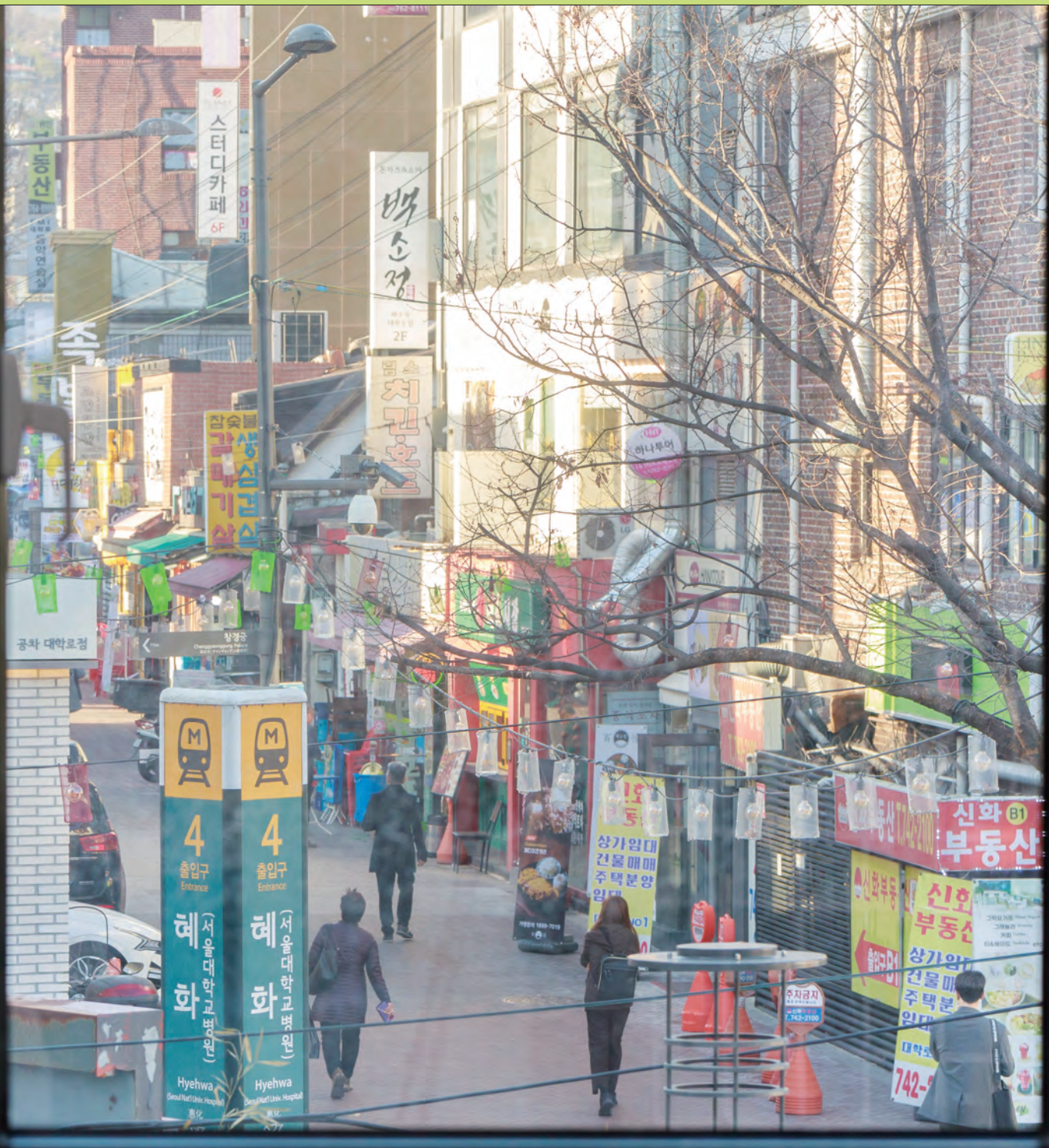


				07
	Contents			
	Scene	Focus	Associated	Column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02 서울시 자치구 소식 03 공연 04 전시 05 축제/행사 06 온라인 콘텐츠	새롭게 문 여는 서울연극센터 10 프로로그 '연극을 위한 공간'으로서 서울연극센터 since 2007 12 칼럼 다시 찾는 대학로, 다시 만난 연극 신斷대학로 시대에 부처 14 가이드 예술가-관객-시민 만남의 장 서울연극센터 지면 집들이 18 인터뷰 공간의 완성은 결국, 사람 서울연극센터를 여는 사람들 22 리포트 배우고, 읽고, 경험하다 서울연극센터는 지금 26 에필로그 낯선 전화에 투명하게 나의 기억 속 서울연극센터	28 예술가의 진심 전통을 투과하는 허윤정의 땀! 36 페이퍼로그 우리 곁에 언제나 예술이 함께한다면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정책팀 김영규 38 문화+후원 취향에 가치와 의미가 더해질 때 DPS컴퍼니와 M컬처컴퍼니의 착석 기부 프로젝트 40 인사이드 매월 첫째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서울스테이지11 43 인사이드 당신의 성년을 응원합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44 예술단체 아카이브 밀레니얼심포니오케스트라 락앤롤크루 LOCK'N'LOL CREW 46 트렌드 미술시장 동진의 '불씨' 2023년을 열고 닫는 아시아 아트마켓 48 트렌드 시는 모작의 대가인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예술 창작 50 해외는 지금 홍콩의 예술적인 재도약을 기대하는 이유	54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이 봄, 주인공이 되어 56 일상 곁의 공예 브랜드는 왜 공예가를 후원할까? 58 삶의 책장을 넘기며 책이 소개해준 '구체적인 얼굴들' 60 동시대적 고전 읽기 지원진 몸들의 향연 62 컨트리뷰터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연재인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책 SJC성전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3년 3월 3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새롭게 문 여는 서울연극센터

2007년
‘서울연극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서울연극센터는 시민의
곁에서 친절한 가이드로,
연극인의 든든한 동료로
13년간 함께해왔다.
그리고 2020년 말
더욱 안전하고 시절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2023년 4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돌아온
서울연극센터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곳을 거쳐 간
사람과 이곳에서 태동한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의
흔적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연극을 위한 공간’으로서 서울연극센터

since 2007

관객을 향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서울연극센터는 그간의 활동을 통해 공연 현장 중심의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긴 공간이다. 재개관을 앞둔 지금, 그간의 기록을 돌아본다.



나무에 맺힌 꽃망울이 봄날을 재촉하듯 따뜻한 기운이 살며시 스며드는 계절, 대학로에도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2023년 4월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는 서울연극센터의 재개관 소식이다. 서울연극센터는 오랜 시간 연극의 다양성을 발견해가는 창작자의 활동 공간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연극의 확장을 고민하는 매개 공간으로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왔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울연극센터 직원과 연극인의 적극적인 공감에서 기인한 상호 교류와 자발성에 있다. 이전에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던 파트너십이다. 연극인이 제안한 기획 프로그램은 단순 의견에 머물러 사장되지 않고 주요 사업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는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장됐고, 이는 서울‘연극’센터가 정말 ‘연극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목적과 상관없이 수월성을 위해 운영되는 공간이 많아지던 시절의 혼탁함에서도 예의 ‘당연한 목적’을 지켜왔던 서울연극센터의 흔적이 지난 세월에 오롯이 남아 있기 때문일까. 여전히 많은 연극인이 서울연극센터에서 단순한 공간 이상의 의미를 찾는다.

이곳의 여러 역할 중에서도 유의미하게 살펴볼 대목이 하나 있다. 서울연극센터는 관객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열었던 시작점이라는 사실이다. 되짚어보면, 2007년 11월 개관한 서울연극센터는 연극계에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 일부 민간 기업을 제외하고는 공공에서 제공하는 ‘공연정보센터’가 없던 시절이기도 하지만, 연극계가 인식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의식을 던졌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2004년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00여 개의 민간 소극장이 운집한 대학로는 말 그대로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확장하던 시절이다. 다양한 방식의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공연 양상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창작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연극계에 새로운 흐름이 대두되던 시기지만, 정작 연극을 찾는 관객에 대한 인식은 전무했다. 특히 온라인 예매와 정보가 확장되던 시절, 여전히 오프라인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연극계는 관객이 공연 정보를 얻을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 무렵 대학로 한복판, 혜화역 4번 출구 앞에 ‘서울연극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개관한 서울연극센터는 관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공연 정보 확장 사업을 펼쳤다. 일차적인 정보 제공뿐 아니라, 관객과 창작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은 현재도 계속 요구되는 의미 있는 시도로 여겨지고 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연극 관객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연극센터는 관객에게는 조금 더 친절한 공연 정보를, 창작자에게는 공연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줬다. 또한 오프라인에 머물던 관극 시스템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고, 관객을 위한 제도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초가 됐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시절에 적합한, ‘연극적 고민’이 선행하는 공간

서울연극센터의 운영 방향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환된 것은 2014년 무렵이다. 대학로에 기존 서울연극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사 공간(예술가의 집·좋은공연안내센터 등)이 들어서고, 온라인 정보 서비스가 다양해지는 등 환경 변화가 자연스럽게 ‘서울연극센터’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더욱이 연극 분야 창작 지원사업 중 일부를 이곳에서 진행하게 되면서 현장 연극인을 직접 만날 기회가 많아졌고, 서울연극센터는 더욱 적극적인 ‘연극 공간’으로서의 역할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 2000년대 대학로 모든 극장의
홍보 창구가 됐던 서울연극센터 1층

→ 각종 공연 사진들로 장식된
옛 서울연극센터 계단 공간



이러한 변화는 서울연극센터가 현장 연극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유대와 소통, 공감과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연극인이 서로를 파트너로서 인식하는 계기를 조성했고, 그것은 서울연극센터가 지난 세월 속에서 획득한 가장 큰 성과이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개관을 앞두고 진행한 ‘서울연극센터 재개관에 따른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집단 심층 면접에 참여한 연극인의 “연극센터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담당자의 진정성 있는 진행 방식에서 협력자 또는 동료 의식을 느꼈다. 이러한 연대감은 타 공공기관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경험”이라는 의견은 이러한 성과를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들여다볼 부분은 이때부터 고도화된 서울연극센터의 주요 사업과 운영 방식, 그것을 실행한 주체, 그리고 당시에 서울연극센터가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있다. 2014년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울연극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이 갖는 공통점이 있다. 연극인의 제안으로부터 출발했고, 매년 개선 의견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 역시 연극인이었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서울연극센터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조성하거나 행정적 기반을 만들어왔다. 특히 자료실로 활용되던 2층 공간을 리모델링해 ‘아카데미룸’과 ‘세미나실’을 조성하고 연극인의 활동 공간으로 운영한 것은 서울연극센터가 현장과 어떻게 소통하고자 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예술 현장에 적합한 지원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예술지원 기관의 숙명이라고 할 때, 현장 중심의 정책과 사업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울연극센터의 다음을 기대하는 근간이 된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023년 4월 재개관으로 서울연극센터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는다. 공간도 달라졌고, 환경도 변화했다. 여러 가지 성과와 의의가 있었던 만큼 대내외적인 부침도 많았던 지난 과정을 상기해보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지금 시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한 가지, 그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서울연극센터는 ‘시절에 적합한 연극적 고민’이 선행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곳이 연극인이 함께 만들고 싶은 공간으로 자리하게 된 데는 동시대의 연극적 화두를 발 빠르게 공유하고 논의를 통해 실행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관객의 확장이든, 연극의 가치 확산이든, 창작 방식의 다양성이든, 늘 연극적 고민으로부터 서울연극센터의 명분과 역할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지난 시절의 성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연극인에게도, 연극을 만나기 희망하는 관객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해온 것처럼, 2023년 조금 더 확장된 공간에서 또 다른 시작을 앞둔 서울연극센터가 그간 연극인이 만들어온 좋은 정책을 더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공간에 적합한 다양한 연극 활동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

→ 무대와 그 뒷이야기를
살펴보고 배우에게서 삶과
연극에 관해 들어보는 프로그램
'대학로연극투어'



대학로가 봄을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도 한풀 숨이 죽은 모양새다. 사람들의 옷차림과 발걸음에 경쾌함이 묻어난다. 극장에는 새로운 포스터가 나붙고 배우들은 부산하다. 대학로에서 이런 생기^{生氣}는 정말 오랜만이다. 사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 7월 대학로극장 퀵드, 11월에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를 연이어 문을 열면서 새로운 대학로 시대를 알렸다. 그리고 올해 들어 오랫동안 준비해온 '서울연극센터'를 4월에, 하반기에는 '서울연극창작지원센터'(가칭)를 열게 된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대학로는 공연장 140여 개가 밀집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적 보고^{寶庫}다. 이제 이곳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대단위 문화발전소가 연이어 문을 열게 되면서 대학로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예술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현재 서울연극센터는 구조 변경 착수 이후 3년 만에 재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혜화동로터리로 이전한 옛 혜화동사무소를 2007년 관객의 공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연극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개관했고, 대학로를 찾는 일반인에게 공연 정보를 알리는 것은 물론 연극인에게도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하는 연극 전문 창작지원 시설의 기능을 해왔다. 2014년에는 일부 시설을 리뉴얼해 연극 장르에 맞는 창작 기반 기능을 구축해오다가 건물 노후화와 안전 문제 해결, 현장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2021년 공사를 진행했다. 서울연극센터는 공연 정보 제공과 연극인 직간접 지원을 위한 사업을 펼쳐게 된다. 무엇보다도 대학로를 찾는 시민이 연극을 더욱 친근감 있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좀 더 방점을 둬으로써, 연극인에게 집중하는 서울연극창작지원센터(가칭)와 기능적인 분장을 염두에 두며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서울연극센터는 4층 규모로 1층은 홍보 및 정보라운지, 2층은 연극 창작자를 위한 다목적실, 세미나실, 공유랩, 3층은 다목적 창작 스튜디오, 4층에는 운영 사무실이 위치한다. 특히 스튜디오는 소규모 공연부터 전시까지 가능한 실험형 발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각 공간은 시민과 창작자가 어우러지는 명실공히 '연극 중심 교류 플랫폼'으로서 시민과 예술가로 복직하는 열린 공간을 지향한다. 연극인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와 낭독공연, 희곡 전시 등을 모은 희곡 페스티벌도 가능할 것이다. 또, 공연예술인 재교육 프로그램, 연극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워크숍, 연극계 학술행사 등 공연예술 자원을 공유하며,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막바지 개관 준비가 한창이다.

다시 찾는 대학로, 다시 만난 연극

신^新대학로 시대에 부쳐

새 단장을 마친 서울연극센터,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가칭
서울연극창작지원센터와 함께 새로이
도약하는 대학로 시대를 꿈꾼다.

↓ 소극장 소식을 두루 다루는 월간 정보지 '대학로 문화지도'



다음으로 하반기에 문을 여는 서울연극창작지원센터(가칭)에 대한 운영 계획이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이곳은 그야말로 연극 제작 활성화에 집중하는 전용 시설로 개관한다. 대지 2,760.5m², 연면적 7,273.3m²에 지하 2층, 지상 6층 구조로, 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규모다. 공간 구성은 200석 규모의 소극장, 150석 규모의 블랙박스 극장, 공유사무실, 연습실, 회의실, 멀티미디어 편집실과 관련 부대시설이 조화롭게 구비된다. 현장 연극인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이곳은 대학로 소극장 및 창작 극장의 위기를 해소하고 공연계 활성화를 위해 연극 제작 초기 단계부터 공연까지 종합 지원하는 거점 시설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이로써 예술성과 실험성을 갖춘 다양한 연극 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발표까지 이어내는 명실상부 '연극인 중심의 창작 플랫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결국 이곳에서는 연극 제작을 위한 원스톱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작품 개발, 제작팀 구성, 제작 과정, 공연 준비, 공연에 이르는 전 과정이 이곳에서 가능할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우수 작품 발굴과 공연 기획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극 작품 발굴과 공모 지원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또한, 작품별 특징에 맞는 연출·번역·각색 등 필요 인력 연계나 전문가를 통한 다양한 컨설팅도 상시로 이뤄지게 된다. 두 번째, 연극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연습실·리딩룸·편집실과 창작자 간 협업과 교류를 위한 공유사무실 기능도 안배할 것이다. 세 번째, 연극인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된다. 이 밖에도 성공적인 공연을 위한 전문 인력 및 홍보마케팅 지원 시스템도 구축될 것이다.

지난해 오랫동안 각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서울문화재단은 신^新대학로 시대를 열었다.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 집적 지구인 대학로에 재단의 상당한 전력이 이동 배치됐다. 올해는 시민과 예술가가 서로 교류하는 서울연극센터와 예술가 창작 전문 공간 서울연극창작지원센터(가칭), 대학로극장 쿼드의 유기적인 연계로 연극 생태계의 '교류' '창작' '유통'의 선순환을 이루는 기반이 실현되는 해다. 이는 서울시에서 역점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와 궤를 함께하는 전략이고, 아직 뚜렷하게 그 전신^{前身}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신^新대학로-예술클러스터' 육성이라는 재단 미션을 위한 로드맵을 따라 본격 항해를 시작한 셈이다. 서울연극센터에서 출발한 기운이 대학로 연극 벨트로 이어지면서 '다시 찾는 대학로, 다시 만난 연극'이라는 재단의 신^新대학로 미션 수행을 위해 쉽지가 않아가고 있으니, 모두 함께 힘을 보태고 땀 흘리는 이들에게 격려 한마디가 필요한 때다.

예술가-관객-시민 만남의 장

서울연극센터 지면 집들이

벽돌 건물이 익숙한 대학로 한가운데에
전면이 투명하게 들여다보여 호기심을
자아내는 4층 건물을 누구보다 먼저
둘러봤다.



대학로에 전면 유리 건물이 들어섰다. 붉은 벽돌의 건물들이 늘어진 대학로 특유의 풍광을 떠올린다면 다소 의아할 수 있다. 대학로 6차로는 김수근 건축가가 본인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벽돌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아르코예술극장과 미술관, 샘터 사옥(현 공공그라운드) 등이 줄지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7년 개관해 16년 동안 연극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한 서울연극센터가, 대학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전면 유리라는 새 옷으로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다.

지상 4층 규모의 서울연극센터는 연면적 942.61㎡로, 라운지, 다목적실, 공유랩, 세미나실,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됐다. 연출가·작가·기획자·배우·무대 디자이너 등 여러 현장 예술가 및 건축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와 연구를 통해 많은 이의 고민과 바람을 눌러 담은 공간이다.



먼저 공간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1층은 전 층이라운지로 조성됐다. 대부분 소극장은 로비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관객이 대기할 장소가 협소하다. 서울연극센터의 1층은 대학로에서 펼쳐지는 공연예술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공연 시작 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이를테면 대학로 소극장들의 공공라운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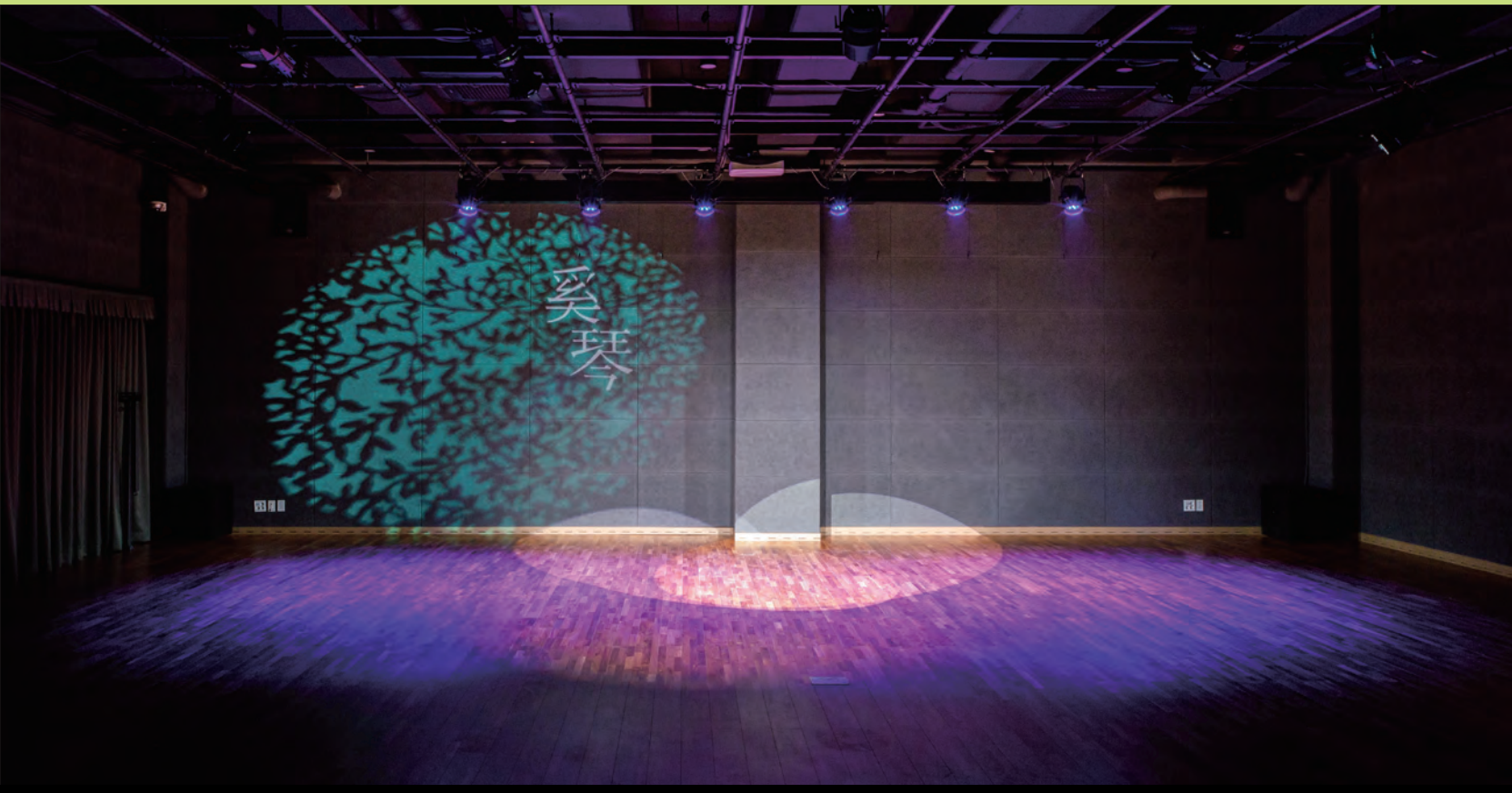
리모델링 이전에도 서울연극센터 1층에서는 대학로 내 소재한 약 140개 공연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학로 문화지도'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단체의 홍보리플릿을 열람할 수 있었다. 새롭게 달라진 서울연극센터에는 대형 전광판과 모니터를 활용해 공연이나 단체를 홍보할 수 있는 비디오월이 조성됐다. 종이 홍보물 제작이 줄어드는 환경을 반영한 공간의 변화지만, 비디오월 맞은편에는 여전히 공연 소개 리플릿을 비치할 수 있는 게시대도 마련됐다. 대학로에서 펼쳐지는 공연이 궁금할 땐 한 번씩 둘러보길 추천한다.



평소에는 방문객의 휴식을 위해 테이블이나 의자로 쓰이는 가구가 종종 소규모 프로그램을 위한 무대로 변신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조각난 10개의 가구가 모이면 반원형의 무대가 되는 것이다. 날이 좋은 봄·가을에는 폴딩도어를 모두 열어 야외의 풍광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소풍 같은 시간도 보낼 예정이다.

2층은 연극인을 위한 공간이다. 워크숍이나 연습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 1개와 회의 혹은 작은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세미나실 2개, 그리고 각종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유랩이 마련됐다. 1층이 대학로를 방문한 모든 이들을 위한 곳이라면, 2층은 예술가가 조금 더 창·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꾸린 곳이라 할 수 있다.





3층에는 약 60평(196.35m²) 규모의 스튜디오가 조성됐다. 공연·포럼·전시·쇼케이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실험할 수 있는 장이다. 서울연극센터의 장수 사업인 연극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PLAY-UP 아카데미'를 비롯해 젊은 극작가의 축제 '희곡제', 활발히 활동하는 배우들과 만나는 토크 프로그램 '퇴근 후 공연 전'까지, 다양한 자체 기획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동시대 연극계 이슈나 여젠다를 다루는 학술행사, 시민 연극 워크숍도 마련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4층엔 대학로의 경치를 볼 수 있는 옥외 휴게공간이 마련됐다. 대기가 깨끗한 날이면 북악산과 성북동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도심 속에서 잠시나마 망중한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이곳 혜화역 4번 출구 앞은 긴 역사를 가진 터다. 1965년엔 서울북부교육청이 자리잡았고, 교육청이 떠난 1981년부터 혜화동사무소로 쓰이다 2007년부터 서울연극센터가 쪽 자리를 지켰다. 다사다난한 2년여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마침내 2023년 4월, 다시 문을 여는 서울연극센터에 또 다른 시간의 테가 새겨질 것이다. 대학로를 찾는 시민과 연극을 찾는 관객, 관객을 맞이하는 예술가가 서로 이어지는 만남의 장이 되길 바라본다.



공간의 완성은 결국, 사람

서울연극센터를 여는 사람들

시민 가까이, 연극인 곁에서 함께
호흡하며 자리를 지킨 16년 세월을
기억하는 이들과 만났다.

#‘대학로의 로비’가 되고자 한 개관 시절

황선영 제가아마 서울연극센터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 중 하나일 거예요. 2008년에
근무를 시작해서 다른 부서로 옮긴 게 2015년
7월쯤인 것 같네요.

현의준 여기 주변에 공적비 하나 세워
드려야겠네요.(웃음)

황선영 근무한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
이곳에서 정말 다양한 사업을 경험했어요. 시민과
함께하는 관객 개발 사업부터 지원 사업까지 맡아서
했죠. 처음에는 ‘대학로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학로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계획해본 것 같아요. 대학로 실태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기초연구도 하고요. 유독 기억에
남는 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학로연극투어,
그리고 젊은 창작자를 지원하는 유망예술지원사업
중 연극 분야의 ‘뉴스테이지NEWStage’네요.

도재형 저는 2008년 연극센터에 와서,
2011년 초까지 근무했어요. 연극센터의 역할이
변화하기 전이라, 연극인 지원보다는 관객
개발을 위한 사업을 많이 했죠. 그때 대학로는
공연예술의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관객들이
연극과 관련해 경험할 수 있는 체임 활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로연극투어를 만들어서
서울연극센터와 아르코예술극장, 그리고 여러

극단이 힘을 합쳐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백스테이지 투어도 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벌였죠. 당시에 대학로 소극장이 150개
정도 있었는데, 각 극장에서 진행되는 공연 정보를
모아서 홍보하는 월간 정보지 ‘대학로 문화지도’도
발행했어요. 그때도 공연 관련 월간지가 있기는
했지만 대학로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보는
없어서, 대학로 문화지도를 통해 공연 정보와 유명
극단을 소개하고 대표 배우도 인터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황선영 지금 혜화역에 보면 문화지도가
있는데, 그게 이때 만들어진 대학로 문화지도를
토대로 만든 거예요.

도재형 그때 만든 자료를 점차
업그레이드한 버전인데, 대학로 문화지도가
대학로를 살펴볼 수 있는 지도의 표준이 됐죠.

현의준 지금도 대학로 문화지도를 찾는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황선영 예전에는 이곳 1층에 티켓 박스도
있었어요. 인터파크랑 제휴해서 운영한 거죠.

도재형 지금의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역할을 연극센터가
해왔어요. 대학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연
정보든 관객 정보든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아예
데이터가 없었으니까요.

현의준 서울연극센터는 창동극장을
제외하고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한 첫 번째 창작
공간이었어요. 저는 당시에 남산창작센터에
근무했는데, 재단에서도 처음 운영하는 공간이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봤던 것 같고요. 사실 공간에도 제약이
 많았어요. 특히 1층은 시민을 위한 로비 형태였다가
한 차례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서가가 들어왔고,
점차 예술가와 시민이 섞이는 형태가 됐죠.

#또 한 번의 변화와 확장

황선영 2013년에 서울시에서 대학로
극단과 지역 극단 활성화를 위한 ‘연극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5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건데, 준비 단계에서 관계자 회의도 자주 하고
실태조사도 해 보니 서울연극센터가 연극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죠.
이미 시민과 대학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었고요. 연극인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개편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웹진 ‘연극in’이 창간했고요. 또 현장 연극인을
지원하기 위해 ‘PLAY-UP 아카데미’라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처음 출발했어요.

김영민 말씀 들으니 저 역시 감회가
새롭네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이 없어지거나
리뉴얼되고 새로 생겨나는 경우가 많은데,
연극센터는 다른 부서에 비해 오래 전부터 사업이
지속성 있게 이어지는 편인 거 같아요. 대학로
문화지도도 지금은 아니지만 최근까지 해왔고요.
PLAY-UP 아카데미는 여전히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고요.

황선영 문화지도는 웹진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죠. 종이 잡지로 나오던 것을 시대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 웹 형태로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도재형 사실 예전에는 e-stc.or.kr이라고
서울연극센터 웹사이트를 따로 운영하기도 했어요.
대학로 공연 정보를 제공하고, 그와 연계해서
예매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했죠. 그러다
인터파크 등 플랫폼이 커지면서 연극센터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콘텐츠를 큐레이션 하는 역할로
전환한 거고요.

황선영 2014년을 기점으로 공간도
재구성됐는데요. 개관부터 그전까지가 1기라고
한다면, 그 후 2기는 연극센터의 역할 다변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이 진행된 것 같아요. 연극인을
위해 전문 잡지와 각종 서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정보자료관이 2층에 있었는데 1층으로
옮겼고… 그때 정말 책 싸느라 힘들었죠.(웃음)
연극투어 같은 사업들을 재정비했고요. 또 웹진
‘연극in’과 연계해서 젊은 극작가들의 작업을
낭독공연으로 선보이는 ‘10분희곡페스티벌’이
열렸어요. 관객에게는 연극을 만나기 위한
로비 같은 공간, 또 연극인에게는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이뤄지는 공간이 되고자 여러
사업들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점차 우리가
매개하지 않아도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이곳을
찾는 관객들이 많아지면서 공간의 기능과 분위기가
새로워졌죠. 오랜 기간 근무하기도 했지만,
서울연극센터에서 해온 사업들은 모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생동감 넘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유망예술지원사업 ‘뉴스테이지’ 첫 번째





선정 연출가가 구자혜·김수정·이래은이었는데, 물론 그분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여전히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는 걸 보면서 지금도 괜히 혼자 뿌듯해하고 그러죠.

도재형 당시에는 서울연극센터 공간이 먼저 주어지고, 그에 맞게 운영하는 형태라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3~2014년 들어서 공간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우리가 '대학로의 로비'를 자청하고 개관했지만, 여전히 대학로의 중심지는 마로니에공원이 있는 2번 출구 쪽이었고요. 그런데 이후로 서울연극센터에서 PLAY-UP 아카데미, 10분희곡릴레이 같은 연극인을 위한 사업이 펼쳐지면서 자연스레 '연극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시기의 변화 덕에 공간과 기능이 점차 적절하게 섞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황선영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면서 뚜렷한 변화를 체감한 것은 아니지만, 점차 연극인들이 운영사무실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꼭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고, 연극인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로 자리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때 정진세 작가님이 아오병영 페스티벌 같은 걸 기획해서 연극센터에서 열기도 했거든요. 그런 재밌는 기획을 시도해보는 장소가 되고, 더 많은 연극인이 이 공간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서울연극센터가 점차 확장해나간 것 같아요.

현의준 어쨌든 서울연극센터는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특히 1층 로비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사고, 민원, 시설 관리도 어마어마하죠. 업무 분장에는 없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도재형 말씀하시니까 잠시 잊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웃음) 다음 날 출근하고 나면 벌어져 있는 주취자의 온갖 흔적들.

황선영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저는 속칭 '빠끼'와의 전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당시 서울연극센터 1층에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연의 리플릿이 비치됐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가 공연을 홍보하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극센터 현관문 앞에 줄줄이 서 있고, 한눈팔면 들어와서 표를 팔고 있곤 했죠. 나름대로 치열한 싸움이었어요. (웃음)

#유지할 것은 지키고 부족한 것은 개선하며

황선영 새로 완성된 공간을 둘러보니 구조가 훨씬 더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3층에 어린이집이 있었죠. 이제는 온전히 서울연극센터만을 위한 공간이 된 것 같아 감회가 남달라요. 무엇보다 연극인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도재형 예전에는 3층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서 외부로 연결된 미끄럼틀로 종종 소방 대피

← 도재형 현 문화향유팀장. 2008년부터 2011년 초까지 서울연극센터가 관객 개발에 집중했던 시기에 함께했다.

↓ 김영민 서울문화재단에 입사하자마자 서울연극센터에서 업무를 시작, 홍보팀에서 3년을 보낸 뒤 다시 서울연극센터에서 리모델링과 재개관 업무 전반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훈련도 벌어지고, 이맘때면 어린이집에 새로 입학한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떠들썩하곤 했어요. 이제는 서울연극센터가 온전히 연극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시설과 조직을 갖춘 전용 시설로 거듭난 것 같아요. 서울연극센터가 내세운 초창기 모델은 '대학로의 로비'였어요. 그런데 로비 기능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든 근처를 지나가면서도 한 번씩 둘러보고 싶은 멋진 공간이 됐네요.

김영민 서울연극센터에 발령받았을 때 '새 건물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실제로 만난 이곳은 그냥 깡통 건물이었어요. 읍성이 하나도 없는 새롭게 지은 건물임에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누수가 생겨서 보완 공사를 하느라 여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 공간을 조성하느라 바쁘게 지내다보니 2022년 하반기가 흑 사라졌고요. 봄이 되니 이제야 끝이 나겠구나 싶었는데, 재개관을 앞두고도 여전히 해야 할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미 제게는 공간이 너무나 익숙해져버렸고요.

황선영 실제로 시민과 연극인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새롭게 느껴지겠죠.

→ **현의준** 현 서울연극센터팀장. 2007년부터 서울연극센터가 속한 창작공간 운영 부서에 근무했고, 2017년에 이어 2022년부터 다시 서울연극센터를 담당하고 있다.

↓ **황선영** 현 예술교육지원팀장. 서울연극센터에서 2008년부터 2015년 중반까지 근 7년을 보내며 개관 초기의 사업과 변화를 경험했다.



#새로워진 서울연극센터에게

도재형 2008년 당시 팀장님이

대학로 문화지도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 문구를 꼭 집어넣으셨어요. “대학로의 시작은 서울연극센터에서” 그때는 이 문구가 참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시민에게도, 대학로를 찾는 관객에게도, 연극인에게도 대학로의 시작은 서울연극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황선영 너무 낯설어서 들어오기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지루하지도 않은. 만나보고 싶고, 가보고 싶은 편안한 공간이 되면 좋겠어요. 새로워진 공간을 둘러보니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성 들여 준비한 부분은 언젠가 알아주시더라고요. 서울연극센터에 오는 것만으로 대학로 그 자체와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서울연극센터가 시민이 대학로와 만나는 접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영민 성북구에 생길 시설과 차별성을 두면서도 서울연극센터가 지향하려는 것은 결국 ‘교류의 장’인 것 같아요. 연극계와, 연극을 찾는 관객과 만나 더욱 확장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웃음)

현의준 공간에 대해서도, 사업에 관해서도 긴 시간을 할애해 재개관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부담이 큼니다. 서울연극센터가 앞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지 현장과 긴밀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새롭게 문을 열면서 특히 시민과 예술가가 공존하며 머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현장 연극인을 포용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니, 조금은 긴 호흡으로 꾸준히 서울연극센터를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민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공간이 어떻게 사용될지 기대가 됩니다.

현의준 서울연극센터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연극계와 긴밀하게 협업해온 것은 결국 이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리모델링을 진행한 2019년부터 공간 없이 사업만 진행하다보니 확실히 현장과 마주하는 기회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새롭게 문을 열면서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현장 예술가들을 어떻게 이 공간에 유입시켜서 이전처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또 새로워진 공간을 활용한 사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생각이 많습니다.

김영민 개관 전부터 꾸준히 자문회의를 열고 있는데, 결국 사업과 공간이 유기적이어야 파트너십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1층 공간이 공공의 로비이자 라운지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곳이 단순히 서울연극센터의 공간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직접 주체가 돼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도재형 ‘서울연극센터’라는 이름이 주는

대표성, 그리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엄청난 것 같아요. 예전부터 관계자나 관련 협회, 연극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점이 상당했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연극센터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연극인들이 어떤 기획을 펼칠 수 있을지 궁금함이 큼니다.

현의준 또 한 가지, 올해 말이면 성북구에 가칭 서울연극창작지원센터가 개관하게 돼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극 창작에 관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시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연극창작지원센터와 서울연극센터의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는 것 역시 주어진 미션이고요. 연극센터가 시민과 예술가가 만날 수 있는 접점, 일종의 플랫폼 역할이라면, 서울연극창작지원센터는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 될 예정이에요. 뮤지컬이 차지하는 영역이 확장되고 연극이 점유하는 지역이 혜화동로터리 위쪽으로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서울연극센터부터 성북구 서울연극창작지원센터까지 이르는 공간이 범 대학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배우고, 읽고,
경험하다

서울연극센터는 지금

공간을 몰라도 다음 셋 중
하나는 들어봤을 것이다. 개관
이래 꾸준히 연극인과 시민 곁에
함께해온 서울연극센터 대표
사업들은 올해도 오픈 런!

PLAY-



UP

→ 연출가 윤한솔의
'수행 프로젝트'

↓ 마임리스트 고재경의
'움직임의 경제적 효율성'



PLAY-UP 아카데미

“그동안 오직 대학로만 느꼈던 선생님의 생각을 직접 구체적으로 작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내게는 너무 소중하다. 2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된, 일주일에 세 번 만나는 선생님과 수업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스타니슬랍스키Konstantin Stanislavski의 『배우 수업』에 나올 것만 같은 내용이지만, 2013년 PLAY-UP 아카데미 기록집 중 '정규 과정: 장면연기실습'에 관해 기록된 이야기다. 2023년 현재는 그와 다른 강의와 강사, 수강생들이 참여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의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

연극인 재교육 프로그램 'PLAY-UP 아카데미'는 2012년 시작됐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재교육'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연기·연출·극작 등 연극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해왔다. 서울연극센터 사업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2022년까지 121개 과정, 856회가 열리고 수강생 1,956명이 참여했다. 이제 막 연극계에 진입했거나, 경력은 있지만 소속된 극단이 없어 개인적으로 활동하거나, 경력 단절을 경험한 창작자 등 다양한 상황의 수강생이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유대감과 동료애 등을 다지는 경험을 했다.

PLAY-UP 아카데미는 크게 정규 과정과 특별 과정으로 이뤄진다. 2022년에는 6개의 정규 과정과 6개의 특별 과정이 진행됐다. '기술적 사유를 통한 연출 기술 획득', '극작수업-희곡창작워크숍', '퍼포머를 위한 신체 훈련과 안무해보기' 등 정규 과정을 통해 배우·극작가·연출가의 역량 강화를 도왔다. 더불어 특별 과정으로 동시대 극작가들의 이슈를 탐구하는 '극작주간'과 공연 사전 준비를 위한 '위밍업주간'을 진행해 창작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재개관하는 서울연극센터 공간을 활용해 아카데미 사업을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2층 다목적 공간뿐만 아니라 3층 스튜디오 공간을 이용해 더 많은 수강생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아카데미 과정 후에도 수강생의 네트워킹과 창작 발표를 위한 공간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소극장이 밀집한 대학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후 개관할 서울연극창작지원센터(가칭)와는 차별화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장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과정과 더불어 시민 창작 워크숍 등을 통해 참여 대상의 폭을 시민까지 넓힐 계획이다.

연극in

웹진 '연극in'

“대학로에 왔는데, 무슨 연극을 보면 되나요?” 서울연극센터에는 종종 이런 문의 전화가 온다. “관객을 위한 연극가이드” 웹진 ‘연극in’ 창간호 옆에 적힌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연극센터는 2012년부터 웹진 ‘연극in’을 발행해 이런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관객을 위한 가이드뿐만 아니라 연극계 이슈를 담아내는 담론지까지, ‘웹진’ + ‘연극’ + ‘in(인/人)’이라는 말에 그 대답이 들어 있다.

‘연극in’은 ‘웹진’ 형식으로 격주간 발행해 다양한 소식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공유하고 더 많은 독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 5월에는 200호를 맞아 배리어프리 특집호를 마련, 기존의 읽기 방식뿐만 아니라 수어 통역과 음성 낭독을 제공했고, 2022년에는 웹사이트 개편을 통해 웹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신인 배우와 음성 낭독을 진행하고 시각장애인 관객과 웹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연극 현장과 함께 호흡하고자 노력했다.

‘연극in’은 ‘연극’이라는 예술의 고유성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보여준다. 김혜자·이강백·전미도 등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연극인부터 어린이 배우까지, 연극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터뷰와 조금은 덜 알려졌을 공연도 세심하게 찾아서 다루는 리뷰, 연극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심층 조망하는 기획과 현장의 문제의식에 대한 취재 기사, 필자만의 관점이 드러난 칼럼, 극작가들의 신작 희곡과 공연 소식이 담긴다.

‘연극in’은 연극을 만들고 보는 ‘in(인/人)’을 통해 변화하는 연극을 기록하고, 동시대 연극이 세계를 그려내는 방식을 탐색한다. 연극인의 건강, 연극과 지구 환경, 미투 이후의 연극계, 새로운 비평 방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2022년에는 127명의 필진이 참여해 169개 콘텐츠로 연극을 기록하고 탐색했다.

서울연극센터 재개관을 앞둔 지금, 다양성을 인식하는 작품이 점차 늘고 있다. 관객의 안전을 위해 트리거 워닝(trigger warning)(불건전성에 관한 경고문)이 공연 홍보물에 포함되거나 더 많은 관객의 지속 가능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공연 접근성을 고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연극 현장을 다루며 함께 호흡하는 웹진 또한 다양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웹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새로워진 서울연극센터 공간을 활용해 오프라인과도 연계해 시민의 연극 경험을 활성화하고, 내부적으로는 제작 및 편집 환경을 점검, 보완해 지속 가능한 제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서울연극센터에서 열린
‘연극in’ 230호 대담



↑ 2015년 10분희곡릴레이 낭독공연
조영주 작 <힘줄>

희곡페스티벌

희곡페스티벌

서울연극센터는 직접 희곡을 공연으로 만들어 선보이기도 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웹진 ‘연극in’에 게재된 희곡을 낭독 또는 공연으로 제작하는 10분희곡릴레이페스티벌을 진행한 것이다. ‘10분희곡릴레이’라는 ‘연극in’의 코너가 신진 작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과 참여를 보이면서 10분희곡릴레이페스티벌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신진 작가에게는 작품 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객에게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 체험 기회를 마련해 연극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다.

공연작은 2014년 8편으로 시작해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2018년에는 32편에 이르렀다. 그렇게 총 105편의 희곡이 10분희곡릴레이페스티벌을 통해 소개됐다. 참여 작가 중에는 아직 연극계에 진입하지 않은 비전공자도 있었기에, 이들에게는 연극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0분희곡릴레이페스티벌로 시작해 현재까지도 연극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도 다수다. 그간 이 페스티벌에는 총 360여 명의 작가·연출가·배우 등 제작진이 참여했다. 이로써 창작자 간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작가와 연출가, 연출가와 연출가, 작가와 배우 사이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 그 인연이 또 다른 공연으로 이어져 나가기도 했다. 10분희곡페스티벌에는 연평균 330여 명의 관객이 참여해 공연 관객의 저변을 넓히고, 시민에게 새로운 연극을 소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점차 10분 희곡의 주제와 수준이 서로 유사해지면서 2019년에는 이 코너가 폐지됐는데, 2020년부터 다시 새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희곡 게재를 이어나가고 있다. 2022년에는 94편을 투고받아 25편을 선정, 게재했으며, ‘희곡’ 코너에 대한 극작가들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희곡제

① 낭독공연

4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7시 30분 | 3층 스튜디오

② 전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1층 라운지·3층 스튜디오

2023년에는 재개관 프로그램과 연계한 ‘희곡제’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연극in’에 게재된 희곡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한다. 희곡제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3층 스튜디오를 주로 이용해 낭독공연, 전시 등 희곡을 다양한 방식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 낭독공연은 별도로 연출가를 두어 진행하던 기존 희곡페스티벌 방식에서 벗어나 작가가 연출을 맡는 등 작가가 주도적으로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전시를 통해 동시대 희곡의 생성·전달·소멸 과정을 시청각화하고, 희곡 작품과 희곡 쓰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낯선 전화에 투명하게

나의 기억 속 서울연극센터

간이 작은 편이라 자주 놀란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나 공사장의 소음같이 요란한 것에만 놀라는 것이 아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혼자서 ‘웅-’ 하며 돌아가는 냉장고 소리에. 길 위에서 지나치던 아무개가 ‘헉!’ 입을 다무는 소리에 놀라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발신자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의 진동 소리. 저장되어 있지 않아 숫자만 노출되는 화면을 보면 심장 박동수가 묘하게 빨라진다. 고민에 빠진다. 받을까, 말까. 낯선 전화는 대개 스팸이다. 스팸 전화를 매몰차게 끊지 못해서 결국 쓸모없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므로 애초에 안 받는 것이 좋을 테지만, 이 낯선 발신자들의 전화를 차마 무시하지 못한다. 아주 가끔은 반가운 처음들로 이어질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초, 극작가로서의 미래를 막연하게만 그리던 때였다. 낯선 번호로 걸려 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다행히 스팸은 아니었다. 전혀 아니었다. 수화기 건너편에서 전해온 건, 내가 쓴 희곡이 서울연극센터 웹진 ‘연극in’ 10분희곡릴레이 작품 공모에 선정됐다는 소식이었다. 정확히 어디로 향하던 중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걷는 중이었다. 생경한 반가움에 발을 멈추고, 한동안 그 전화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 기억난다. ‘작가님’이라는 생소한 호칭이 연거푸 건너왔다. 그 말들이 나를 향하는 것이 맞나 싶었다. 발신자가 앞에 있지 않은데도, 나는 통화 내내 사회성을 갖추기 위해 어색한 웃음을 계속해서 지어 보였다. 얼굴도 아마 무지막지하게 빨개졌을 것이다. 그날의 낯선 전화를 시작으로 연극을 하기 시작했다. 낯선 전화가 차마 끊지 못하는 스팸이 아니라, 묘연한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그때의 전화로 체득한 것이다.

4월 7일 발행된 89호 ‘연극in’에 희곡이 게재된 것으로 보아, 봄이었었는가 싶다. 아무래도 그해의 기억들은 계절보다는 당시 발표했던 희곡을

2016년 11월 서울연극센터 1층에서 열린 10분희곡릴레이페스티벌에서 만난 배해를 작가에게 2023년 4월, 그간의 안부를 물었다.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 처음 나의 희곡을 웹에서 마주했을 때가 떠오른다. (몇 안 되는) 친구들에게 좀 읽어 달라, 댓글 좀 달아 달라 부탁하던 순간도 떠오른다. 간만에 들어가 보니, 익명이지만 익명이 아닌 익숙한 목소리의 댓글들이 몇몇 눈에 띈다. 정말로 써줬구나. 고맙네. 내가 쓴 희곡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읽히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신이 났다. 독자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 어떻게 읽으셨느냐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웹진에 들어가, 변할 리 없는 고정된 희곡의 텍스트를 읽고 또 읽었다. 그 순간들을 정말로 대책 없이 즐겼다.

인상 깊은 해였고 뜻깊은 경험이었으니 분명 아주 선명히 기억에 남아 있겠지 싶었던 것들이 실은 아주 영성하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포스터를 보니 더욱 그렇다. 서울연극센터에서 했던 2016년 10분희곡릴레이 페스티벌 공연이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고. 희곡이 게재된 것이 봄이었으니, 막연히 공연은 여름쯤에 했겠지 착각했다. 공연을 보러온 관객들의 웃차림을 반팔 정도로 상상했는데, 그것보다는 두꺼웠겠네 싶어 기억 속 장면을 조금 고친다. 포스터에서 생소한 숫자를 또 발견했다. 웹진에 소개된 작품 중 총 29편을 무대화했다고. 열 개쯤 됐으려나 생각했는데 29편이나 됐다니. 그럼 그때 서울연극센터에는 29편의 공연과 29명의 극작가들과 또 연출가들, 또 배우들, 또 스태프들, 또 관객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두둥. 모두의 경험을 혼자 차지하려 했구나 싶어 갑자기 미안해진다. 그때 그곳에 있던 모두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지금도 다들 연극 근처에

살고 계신가요.

혹시 아는 얼굴이 있나 싶어 공연 당시의 사진을 찾아봤다. 그리고 보니 이따금 동료들로부터 자신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아나나 다들까 내 얼굴 옆에 뻗히 앉아 있는 아는 얼굴과 이름들을 발견했다. 지금의 그들을 떠올리니, 그때 그들을 일찌감치 알지 못했던 것이 괜히 아쉬워졌다. 그때의 그들에게도 그렇게 마냥 대책 없이 좋았던 처음들이 있었을까. 찾아왔었을까. 아! 물꼬가 트이니 계속해서 기억들이 떠오른다. PLAY-UP 아카데미 극작수업-희곡창작워크숍 낭독회에 초대받은 적도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동료 작가들이 서로에게 건필을 응원해주던 말들도, 카페에서 서로의 희곡을 마음 다해 읽어주고, 마음 다해 이해해주려던 대화들도. 또다시 안부를 묻고 싶어진다. 다들 잘 살고 계시는지요.

그 후로 지금까지 연극을 하는 해가 있었고, 연극을 기다리던 해가 있었다. 그 가운데 연극은 마냥 대책 없이 좋아할 수는 없는 무언가가 되어 있었고, 극장은 때때로 위선처럼 느껴졌다. 극작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에 부치는 일인지 아시냐고 칭얼대고 싶은 날들도 많았다. (그때마다 저의 칭얼댐을 들어주셨던 몇몇 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보냅니다.) 새삼스레 2016년의 낯선 전화를 받던 내가 부러워졌다.

공사장 가림막을 예상하며 들른 혜화에서 전면이 투명한 유리 벽으로 이루어진 새 서울연극센터를 마주했을 때, 낯선 전화에 투명하게 뛰어대던 심장을 되새겼다. 저 안에 앞으로 들들 연극과 모일 사람들을 상상했다. 그때 알지 못해 아쉬웠던 이들과 그때 그곳에 없었던 이들을 떠올렸다. 그들 모두에게 보내고 싶은 안부들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마음속에 눌러 담았다. 저 유리 너머로 더 많은 얼굴들의 처음들이 쉬이 들어서기를 바랐다. 저 벽은 그러기 위해 투명해진 것이라 내 마음대로 믿어버렸다.

Associated

예술가의 진심

전통을 투과하는 허윤정의 땀!

페이퍼로그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정책팀 김영규

문화+후원

DPS컴퍼니와 M컬처컴퍼니의

좌석 기부 프로젝트

인사이드

서울스��이지11

서울청년문화패스

예술단체 아카이브

밀레니얼심포니오케스트라

락앤롤크루 LOCK'N'LOL CREW

트렌드

2023년을 열고 닫는 아시아아트마켓

생성형 인공지능의 예술 창작

해외는 지금

홍콩의 예술적인 재도약을 기대하는 이유

전 통 을

투 과 하 는

허 윤 정 의

땡 !





← 허윤정을 주축으로 한 블랙스트링은
2016년 세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 엑스포인
WOMEX에 참가했다 ©Yannis Psathas

어떤 분야에서 치열하게 전진하는 사람을 볼 때, 호사가들은 어떤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히고 만다. 유치하고 호전적인 호칭, ‘전사’를 접미사처럼 붙여버리고 싶다는 치졸한 열망. ‘테크노 전사’, ‘힙합 전사’….

3월 11일 오후 종로구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만난 거문고 명인 허윤정. 그의 열변을 들으면서 문득 저 음험한 열망이 솟구치는, 그것을 못내 억누르는 자신을 발견했다. ‘거… 거문고… 전사.’ 이정현도, 지누션도 아닌 이분께 감히 ‘전사’를 붙여도 되는 것일까. 그 순간, 아니, 대화가 1시간을 지나 후반부로 흐를수록 그의 얼굴 위로 마치 매직아이처럼 어떤 액션 여배우의 실루엣이 겹치기 시작했다. 그렇다. 이것은 우리가 2023년, 새로이 맞이해야 할 어떤 멀티버스 전사에 대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허윤정은 최근 서울문화재단이 제정하고 시상하는 제1회 서울예술상 대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허윤정의 악가악무〈절정 絶頂〉이다. 서울예술상은 수준 높은 예술 창작으로 예술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한 예술 작품에 상을 수여한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선정작 중 우수 작품을 선발하는 순수예술 분야의 시상 제도다. 후보작 5개 분야(연극·음악·무용·전통·시각) 중 전통 분야의 〈절정〉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첫 시상식을 개최한 서울예술상의 파격이었다. 다음은 허윤정과 의 일문일답.

서울예술상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1회 수상자가 되셨는데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



창작이라는 측면에서 그간 책임감을 느끼고 개척해 나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전통에 방점을 두고 한번 반환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획한 무대가 <절정>이었지요. 이미 해외의 경우 월드뮤직이든 재즈 쪽이든 해당 분야의 명인급들이 전부 나와서 활동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되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트렌드’, ‘퓨전’, ‘젊은’... 이런 것들과 명인들 간의 가교 역할이 필요했어요. 그런 점들을 짚어본다는 느낌이었는데, 상까지 받게 되니 갑자기 주시는 선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이 나고 기뻛죠.

<절정>을 기획하며 개인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했나요. 우리 음악은 악가무樂歌舞가 합쳐질 때 진면목이 드러나지요. 현대 국악 교육에서는 분화가 됐어요. 작곡 따로, 연주 따로, 타악 따로, 춤 따로... 이를테면 1인 1악기 체제로요. 옛 명인들은 두루두루 다뤘거든요. 이번 <절정>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악가무를 다시 합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중학 시절 한국무용을 전공한 뒤) 몇십 년간 춤을 안 뛴데 갑자기 다시 잘될 리는 만무하죠. 저희 선생님 영상을 띄워놓고 제가 옆에서 따라 추는 연습부터 했어요. 춤을 추다가 거문고를 잡고 선생님 춤에 맞춰 내가 거문고를 타는 것으로 이어갔죠. 새벽 서너 시까지 학교(서울대학교)에 남아 혼자 연습하던 시간에 진짜 많은 명인 선생님의 음악을 듣고 보고 하면서 그분들을 ‘진짜’ 만났던 거죠. 너무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절정>은 한국 전통음악 최고의 명인과 젊은 예인의 악가무를 집대성한 무대였다.

김일구·이태백 명인을 중심으로 젊은 예인 가운데 김태영·정윤형·최여완·송영인 등이 악가무를 펼쳤다. 피아니스트 박종화, 미국 하와이대학교 도널드 워맥Donald Womack 교수까지 참여해 동서양을 아우른 판이었다.

거문고 연주자로서, 그 여정에서
거문고는 어떤 의미였는지요. 선현들은 무현금無絃琴, 즉 줄이 없는 거문고를 탔다는 전설도 있죠. 그리고 심금을 울린다고 할 때 그 ‘심금’의 의미도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무형의 거문고를 가리키죠. ‘절정絶頂’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인 ‘절정絶頂’이 아니에요. 바로 절대적 기고 안에 존재하는 고요함靜寂이죠.

전통과 침단을 가르며 독주와 그룹
활동을 가리지 않았죠. 그룹 활동만 봐도
슬기둥, 상상트리오, 토리 앙상블, 이스트리오,
그리고 블랙스트링까지 정말 다양한 무대에
서셨는데요. 요즘 근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멀티버스’에 대한 개념을 중심에 두고 공연을 만들고 있어요. 거문고는 늘 ‘타임머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예술이라고 한다면, 거문고는 대단히 상징적인 악기죠. 고구려 무용총에 그려진 벽화에도 지금 제가 연주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거문고가 있거든요. 제가 공연예술창작산실 전통 분야가 신설된 첫 해(2016년)에 <거문고 스페이스>라는 공연을 올렸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거문고로 넘나드는 시공간 여행... 그 후속작을 꾸미고 있는 셈이지요.

허윤정과 거문고의 멀티버스라니,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봤어요. 그것도 너무 재밌게요. 어쩌면 제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절정>을 통해 다시 시도하게 된 전통에 대한 생각과도 통했죠. 전통은 그 당시엔 현재였지만, 지나고 나면 바로 과거가 되죠. 우리의 현재는 곧 미래가 될 테고요. 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초에 아마 <무한수렴>이라는 타이틀로 선보일 듯합니다.

오는 6월 서울시국악관현악단과
협연으로 거문고 협주곡 ‘블랙 드래건’(도널드
워맥 작곡)을 초연하신다고요. 8월에 열리는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예술감독을 4년째
맡고 계시고요. 블랙스트링 3집도 준비에
돌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독특한
프로젝트를 하나 더 시작하신다고요. 도대체
몸이 몇 개입니까. 하하. 제가 피아노하고 거문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8월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밑그림은 3년 전부터 그렸죠. 피아니스트인 서울대 음대 박종화 교수와 동서양의 융화를 해 볼 작정이예요.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처럼 학구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관객층을 국악 쪽으로 좀 더 끌어당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산조를 듣는 ‘귀명창’이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도 있잖아요. 요요마Yo-Yo Ma의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를 상상합니다. 한국 음악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민속음악가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말이지요. 다채로운 음악가와 세계를 돌며 공연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해요.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에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투어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판을 키워볼 생각이예요.

Associated	예술가의 진심
<u>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언급하셨는데,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혹시 정해졌나요?</u> ‘더 띵’이에요. 영어로는 물론 ‘the thing’인데, 한글로 하면 ‘띵’이거든요. 피아노도 거문고도 줄이 있어 “띵”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u>와, SF와 호러 마니아로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 <The Thing>1982(국문 제목 <괴물>, 존 카펜터John Carpenter 감독)이 있어요. 남극 탐험대가 무시무시한 미지의 존재와 맞닥뜨리게 되는 무서운 영화죠. 느낌 있는데요. 오, 좋아요. 일단은 뭐든 할 수 있다는 ‘애니띵anything’, 다 해 보겠다는 ‘에브리띵everything’, 뭔가 다른 걸 해 보겠다는 ‘썸띵엘스something else’... 다 담아보려고 해요.</u> <u>그러고 보니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도 그렇고, ‘더 띵’도 그렇고, ‘thing’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채로운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게, 어디 가능하기는 한 일인가요? 시간도 공간도 얼마든지 제가 압축해서도 쓸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생각의 씨앗은 이미 오래전부터 뿌려져 있었고 하나씩 발아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저는 압축해서 살고 있고, 제 잠재의식과 잠재력을 믿습니다. 어떤 땀 한 석 달이 걸려야 할 곡이 단 3분 만에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연주자로서 평소애 꾸준히 하는 연습이 토양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요.</u> <u>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보면 볼수록, 양쯔충楊紫瓊(양자경,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의 주인공)을 닮으셨어요. 너무 좋아해요. 훌륭한 배우죠. 저 영화 마지막에 울었어요. 좌충우돌하면서 살아온</u>	저의 20대, 30대, 40대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지금의 제게 감사하기도 했죠. 저는 늘 시간에 대한 생각이 많았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서, 어느 날 내 머리에 떠올랐던 멜로디가 어쩌면 미래의 내가 건네준 사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예술을 하셨던 부모님도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니고 저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는 위로를 받았지요. <u>멀티버스는 평행우주입니다. 여러 우주에, 동시에 내가 존재하잖아요. 어느 별에서 저는 완전히 전통 음악인이겠죠. 그 우주에서는 조선 시대가 끝나지 않고 계속돼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도 있죠. 참, 제가 서울대에서 AI 관련 수업을 하고 있어요.</u> <u>AI요?’음악과 AI’라는 음악대학 전공선택 과목인데, 몇 년 전 다른 교수님들(이교구·오희숙 교수)과 의기투합해 만들었어요. 저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주로 ‘아티피셜 이모션Artificial Emotional Intelligence’을 화두로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음악 전공자가 아닌 공대 학생이나 직접 AI를 다루는 친구들도 많이 와서 들어요. 늘 극과 극은 통한다고 봐요. 굉장히 전통적인 부분과 굉장히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모두 관심이 많답니다. 양쪽을 같이 보는 걸 좋아해요.</u> <u>이미 AI가 만든 자장가가 국내 음원 플랫폼에서 많은 스트리밍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만든 자장가를 들으며 잠든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끌어나가겠지요. 그런데 AI가 더 고차원적인 음악을 만드는 시대가 오더라도, 평균율에 기반한 화성과 선율이 중심인 서양 음악보다</u>



국악을 건드리는 데는 좀 더 애를 먹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서양 음악의 기본엔 수학적 구조가 있죠. 그러나 디지털화하기가 매우 좋아요. AI가 접수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국악이나 민속음악은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너무나 입체적이지요. 제가 지금 서울문화문국악당에서 <산조대전> 예술감독을 하고 있는데, 율해의 키워드를 ‘성음’으로 잡았어요. 하나의 음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음정은 물론이고 강세와 음색, 음의 성격까지도 정확하게 표현해내야 해요. 이 음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이면을 가졌는지, 또 품고 있는 감정, 그다음에 기승전결 구조에서 이것이 어떤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는지 등 다양한

제1회 서울예술상

Seoul Arts Awards



것들이 합쳐졌을 때 그 소리를 ‘성음이 좋다’, ‘완성이 됐다’고 우리는 보거든요. 그만큼 국악은 입체적이예요. 이 모든 것을 빅데이터로 만들려면 시간도 진짜 많이 걸리고, 규칙을 찾는 데도 엄청난 노동과 돈과 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과학이 발달하면 인간은 편리해지겠지만 두려운 일도 많아질 거예요. 이를테면 노화를 막는 기술이 나온다고 했을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 이득을 취할 수 있죠. 또 다른 살벌한 계급사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술도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믿었던 예술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시점이 다가올 때, 어쩌면 국악이 인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 봐요.

이를테면 인간성의 보루? 하하. 이제 나중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류가 싸우는 거죠. 과학의 어마어마한 힘 앞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매트릭스의...

네오처럼요? 네. ‘절대 못 준대! 안 될걸!’ 막 이러면서... 하하.

거문고 전사의 남은 꿈은 뭘니까. 진짜 전통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은 여전히 있어요. 명인의 길을 가고 싶은 거죠.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한편으론 현대인 허윤정으로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 즉 국악의 확장성이나 동시대성을 만들어나가는 부분에 제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놓지 않고 가야 할 것 같아요.

↑ 2월 28일 열린 제1회 서울예술상 시상식

그렇게 사람들과 뭔가를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다면 결국 그 모든 것은 제가 하고 싶은 전통음악으로 수렴될 것으로 생각해요. 명인 선생님들의 득음의 경지에는 어쩌면 갈 수 없을지 몰라도, 또 다른 성취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제 음악이 수렴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언제나 여기서 자연인 허윤정, 음악인 허윤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고, 언젠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명인 허윤정을 향해 저만의 길을 닦고 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때 가면 기운도 없을 거고, 또 많은 후배들이 제가 하던 역할을 해주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냥 이게 제 꿈이에요.

우리 곁에 언제나 예술이 함께한다면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한달 전부터 예술지원정책팀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규입니다. 2012년 재단에 입사했으니 햇수로 12년 차... 이렇게나 오랜 시간을 보냈더니 스스로가 놀랍네요. (웃음) 재단에는 다양한 예술 장르를 전공한 직원들이 있는데, 저는 대학에서 광고를 공부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했죠. 그러한 경험 중 하나가 2007년 하이서울페스티벌 자원활동가 '길동이'였어요. 그때 저는 노들섬과 한강 남북단을 연결하는 도보다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강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한 '한강 미라클 수중다리'를 담당했는데,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길동이로 함께한 축제 경험이 너무 좋아서 2008년과 2009년에도 활동했고, 점차 서울문화재단에도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했고, 그렇다면 직접 경험해보자는 생각에 예술지원팀 행정스태프가 되기도 했어요. 자연스레 제 전공인 광고보다도 재단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사업이 사회에 어떠한 방식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네요. 이전 부서에서 7년간 근무하다 이제

“서울 창작예술의 힘, 서울 문화의 미래”

제1회 서울예술상

1st Seoul Arts Aw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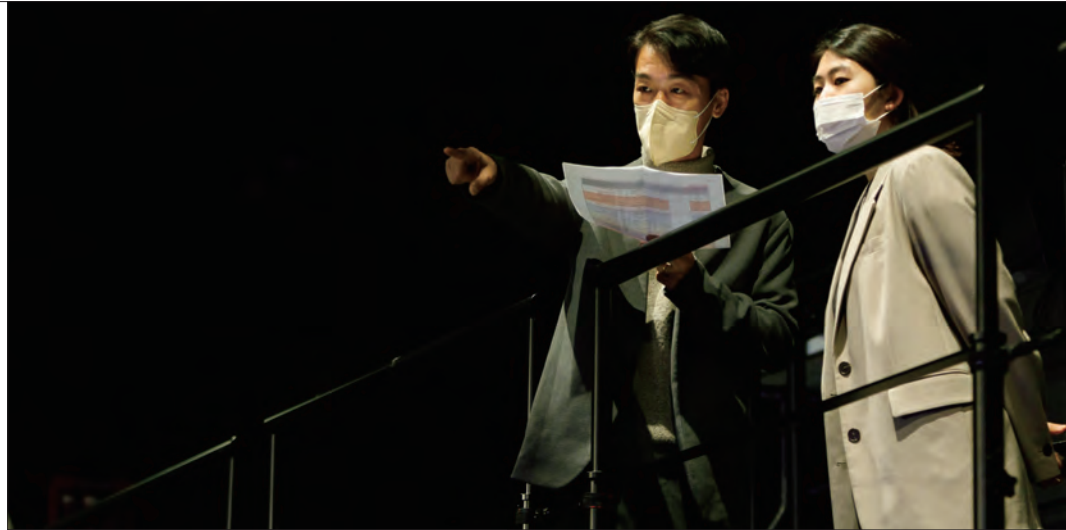
28, Tue 15:00
극장 월드



막 자리를 옮긴지라 잘 모르는 부분도 많습디만, 예술지원정책팀은 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을 통합해 운영·관리하는 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의 제도와 지원 운영원칙 등을 검토하고, 더 나은 예술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한 개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첫 번째 서울예술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그간 예술지원사업이 작품의 창작 과정과 활동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고 시상해 예술가와 단체에 창작 욕구를 고취하고 시민에게는 좋은 작품을 향유하도록 하는 예술지원의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서울예술상’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2022년 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518건 가운데 연극·무용·음악·전통·시각 분야에서 242건이 후보작으로 등록돼 심사를 진행했구요. 서류·토론 심의, 현장 평가 등 5회에 걸친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작품과 우수 작품, 그리고 대상까지 총 11개 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해 2월 28일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항상 그렇듯 행사 당일엔 정말 매우 많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함께 도와주셔서 준비는 잘 되고 있었지만, 제가 지금껏 해온 축제와는 또 다른 영역이다 보니 파악할 것이 많았죠. 시상식이 열리는 재단 대학로센터에 도착한 건 평소 출근보다 매우 이른 아침 시간이었어요. 팀원 모두가 전날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준비했음에도 마무리되지 않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일 아침 팀원들과 각자 해야 할 업무를 확인하고, 저는 포토존과 케이터링 공간 그리고 시상식장 내부까지 행사 장소 곳곳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중간중간 리허설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된 뒤에도 당일 교통상황으로 인해 내빈의 도착이 늦어지는 일이 있다 보니 끊임없는 현장 대응이 필요했구요. 무사히 시상식을 마친 뒤에도 각종 정리를 위해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분주한 순간에도 유독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고요. 시각 분야 최우수상을 받은 이은우 작가님의 소감이에요. 지난해 전시를 준비하는 내내 힘들었던 부분을 이번 서울예술상이 화답하는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울컥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팀원 모두 준비 과정은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상식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최근 업무적으로 가장 골몰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전에 근무한 거리예술축제팀에서도, 현재의 예술지원정책팀에서도 자주 생각하는 것이 ‘문화 향유 확대’인데요. 아무래도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그간 문화적 욕구가 억눌리기도 했고, 재단에서도 ‘시민의 문화 향유’는 끊임없이 확대할 것을 요구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울예술상 역시 예술지원사업을 통해 창작되고 발굴된 우수한 작품을 시민이 널리 향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결과이고요.

10년간 재직하며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 있다면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중 하나를 꼽자면 2017년 서울거리예술축제 개막일의 서울광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몇십 년 만의 황금연휴 기간에 축제 일정이 딱 겹친 때죠. 하루만 휴가를 내면 열흘을 쉴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연휴 기간 수십만 명 출국” 같은 기사가 연일 나오던 때여서 내심 걱정이 들었죠. 축제 당일 저녁, 야심 차게 준비한 스페인 공연팀의 〈무아레〉와 이송환밴드의 공연이 시작됐고, 서울광장에 이렇게나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관객들이 찾아와주셨어요. 서울도서관 옥상과 관객들 사이를 오가며 지켜보는 내내 감동이었죠.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광장과 축제의 모습이다 보니 그때 그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 나의 일상에 영감을 주는 것들이 있나요. 사진, 사람, 여행 등 다양한 지점에서 영감을 받는데, 요즘은 특히 저와 취향,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의 글에서 영감을 발견합니다. 마음에 드는 글귀를 메모장에 기록하거나 갈무리해서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꺼내 보곤 해요. 가장 최근에 저장한 문장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기서 후회 없이 다 해 보자”네요.



DPS컴퍼니와 M컬처컴퍼니의 좌석 기부 프로젝트

취향에 가치와 의미가 더해질 때

요즘 MZ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부 방식은 ‘기부런’(마라톤과 결합한 기부 캠페인)과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라고 한다. 재미요소를 갖춘 체험 또는 자신의 취향을 즐기는 것이 기부로 연결돼 개인의 취향에 가치와 의미가 더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엠브레인의 ‘2022 기부 경험 및 기부문화 관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에게 호감이 가는 기부 참여 방식은 ‘구매 금액 일부를 기부로 전환’(36.8%), 마라톤과

같은 ‘체험 활동을 통한 기부’(34.4%)라고 한다. 조사 결과에서도 최근의 기부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로에서도 이러한 기부 방식을 활용한 관객 참여형 기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DPS컴퍼니 연극 〈운빨로맨스〉, M컬처컴퍼니 연극 〈라면〉의 좌석 기부 프로젝트다.

“힘내라 대학로!”

DPS컴퍼니와 M컬처컴퍼니는 코로나19로 침체한 공연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자, 대학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좌석 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힘내라 대학로’라는

→ ‘힘내라 대학로’ 문구가 새겨진 기부석
↓ M컬처컴퍼니 연극 〈라면〉





힘내라 대학로

슬로건을 걸고 2022년 9월부터 1년간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프로젝트로 조성된 기부금은 대학로 공연예술계를 위해 서울문화재단에 전액 기부하며, 연극 〈운빨로맨스〉, 〈라면〉의 회차별로 지정한 6석(공연별 각 2석·4석)의 판매 수익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소수의 좌석 판매 수익 기부나 좌석 나눔은 종종 있었지만, 연중무휴 공연되는 전 회차의 지정석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부하는 것은 문화예술계에서도 드문 사례다.

몇 년간 우리는 팬데믹으로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고통을 겪었다. 코로나19로 서울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 1위가 대학로라는 보도도 있었다. 그중에서도 중·소극장 공연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DPS컴퍼니와 M컬처컴퍼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대학로 공연예술계를 위해 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DPS컴퍼니는 2016년부터 40여 편의 작품을 기획·제작·홍보해온 공연 전문 회사로, 2021년 〈운빨로맨스〉라는 작품으로 첫 자체 제작 공연을 선보였다. M컬처컴퍼니는 2019년에 창립해 〈행오버〉, 〈설록홈즈〉 등 공연을 기획·제작했으며, 현재 연극 〈라면〉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DPS컴퍼니의 좌석 기부 프로젝트는 회사 창립 초기부터 시작했다. 공연을 향한 관심을 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입양아동을 위한 사업, 저소득층 주거 복지 등을 위한 여러 기부 활동을 해온 것이다. 티켓 판매 수익이 높아서, 사업 운영의 여유가 있어서 기부하는 것은 아니다. 객석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기부하는 것은 이들이 가장 잘하는 ‘공연’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 DPS컴퍼니 연극 〈운빨로맨스〉

싶어서다. 수익이 나는 만큼 그 안에서 기부를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할까.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M컬처컴퍼니가 2022년부터 좌석 기부 프로젝트에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갓생’을 꿈꾸는 MZ세대와 함께

기부 방식도 특별하다. 티켓 수익 일부가 아니라 좌석을 예매하는 관객까지도 기부에 참여하도록 했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부석은 VIP석 기준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관객은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좌석을 선택할 때 ‘힘내라 대학로’라는 문구와 함께 ‘기부석’으로 구분된 좌석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공연장을 찾아 ‘힘내라 대학로’ 문구가 붙은 기부석에 앉은 관객들은 함께 슬로건을 외치기도 하고, 기부 참여에 대한 뿌듯함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기도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극을 보면서 문화예술 기부 활동에도 관심을 두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부의 문턱도 낮춰진다. 그래서인지 이 기부석은 대부분 가장 먼저 팔린다고 한다.

좌석 기부 프로젝트의 인기는 ‘갓생’ 문화와도 연결된다. ‘갓생’은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표현으로, ‘갓god(신)’과 ‘인생ㅈ’을 합친 신조어다. 열심히 살아가며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뜻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하루하루의 일상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갓생’ 문화가 확산했다고 한다. ‘갓생’의 시대에는 소비 영역에서도 가치를 추구하며,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효능을 느끼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기부 문화에서도 ‘갓생’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듯 좌석 기부 프로젝트는 인기 있는 기부 참여 방식과 ‘갓생’에서의 가치 소비를 동시에 추구하며 MZ세대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 기부 프로젝트를 통해 총 1,697석이 판매됐고, 약 1,600만 원의 기부금이 조성됐다. 매월 관람객 400여 명이 기부에 참여한 것이다. 프로젝트는 올해 8월까지 계속되며 5천여 명 이상 관객이 기부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중무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연과 함께하는 기부 문화가 문화예술계를 넘어 개인의 일상에서도 일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매월 첫째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 서울스테이지11

2022년 4월, 시범 운영으로 첫 번째 ‘서울스테이지11’이 시작됐다.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서울시민의 매월 첫째 목요일 반차 사유가 되리라는 것을.

예술가에게는 활동 무대를, 시민에게는 삶의 여유를 제공하는 서울스테이지11은 2022년 서울문화재단 3대 전략·10대 혁신안의 신호탄을 쏘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 곳곳 창작공간에서 총 63회 공연을 통해 6천여 명 시민을 만나며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힘써왔다.

2023년 서울스테이지11은 더욱 다양한 무대로 풍성한 목요일을 선사한다. 먼저 오전 11시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하던 공연 시간을 오후 12시·2시로 확대 운영한다. 좋은 공연을 전부 관람하고 싶지만, 같은 시간대에 진행돼 아쉬웠다는 관객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목요일 하루 동안 창작공간을 탐방하며 첫 공연(정오), 두 번째 공연(오후 2시)을 즐기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거점 공간 4개소(대학로센터·서울예술교육센터·시민청·청년예술청)에서는 정오에, 특화 공간 5개소(서울무용센터·연희문학창작촌·서교예술실험센터·서울연극센터·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는 오후 2시에 공연이 열리며, 금천예술공장과 문래예술공장에서는 특정 월마다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클래식 음악·국악·재즈, 북콘서트, 낭독공연 등 각양각색 공연예술을 만날 수 있는 월간 활력소 서울스테이지11. 올해의 첫 무대는 4월 6일 오후 12시에 거점 공간 4개소에서 만날 수 있다.

4월 대학로센터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모던 록 밴드 몽니가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육망밴드’, ‘괴물밴드’ 등 수식으로 모던 록의 정수를 이끄는 몽니는 2005년 데뷔해





다양한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는 정성하·김영소의 감미로운 기타 듀오를 만날 수 있다.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정성하는 구독자 7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스타로, 제이슨 므라즈·아이유 등 다양한 예술가와 협업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JTBC <슈퍼밴드>에 밴드 '호피폴라' 멤버로 출연해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기타리스트 김영소와 함께 봄의 시작을 느낄 수 있는 하모니로 관객을 초대한다. 시민청에서는 어쿠스틱 감성 여성 듀오 제이레빗의 청아하고 기분 좋은 음악으로 위로를 전한다. 전 세대에서 인지도 높은 '제이레빗표' 포근한 음악으로 계묘년의 봄을 맞이한다. 청년예술청에서는 젊은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의 앙상블을 만날 수 있다. 박진수·김나형의 바이올린, 조형국·노원빈의 비올라, 윤석우·최서희의 첼로로 드보르자크와 차이콥스키의 곡이 연주된다.

특화 공간에서는 공간별 특성에 어울리는 장르 무대를 선보인다. 서울무용센터에서는 5월에서 9월까지 현대무용·전통무용 그리고 스트리트 댄스까지 다양한 무용 장르를 준비했다.

연희문학창작촌에서는 5·6·9·10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야외무대에서 입주작가·기성작가와 음악이 함께하는 낭독 북콘서트를 연다. 서교예술실험센터는 5·6·9·10·11월 인디아티스트들의 다양한 활동 무대를 선보인다. 4월 재개관 예정인 서울연극센터에서도 5·7·9·11월 연극 낭독공연을 만날 수 있다.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는 7월과 8월 방학을 맞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극을 선보인다.

올해는 재단 창작공간뿐만 아니라 서울 도심 일상 휴게공간에서도 서울스테이지11을 만날 수 있다. 이태원 활성화와 상권 회복을 위해 이태원 일대에서 클래식 앙상블 공연을 올리며, 5월에는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서울서커스축제 특별 무대로 시민을 찾아가는다.

2023년 서울스테이지11은 예술가의 생각과 표현을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무대로 기획된다.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가와 관객이 마주 앉아 사적인 이야기와 감정을 전할 수 있는 곳, 바로 서울스테이지11만의 매력



아닐까. 매월 첫째 목요일, 서울스테이지11을 통해 일상 속 재미난 상상을 펼치고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선물 같은 시간을 누리길 바란다. 모든 공연은 서울스테이지11 웹사이트(www.sfac.or.kr/stage11)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울스테이지11', 인스타그램 @seoulstage11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4월 서울스테이지11

4월 6일 오후 12시 | 거점 공간 4개소

- ① 대학로센터 | 몽니 <봄, 소년이 어른이 되어>
- ② 서울예술교육센터 | 정성하·김영소 <Golden Fingers>
- ③ 시민청 | 제이레빗 <너의 봄>
- ④ 청년예술청 | 박진수·김나형(Vn.), 조형국·노원빈(Va.), 윤석우·최서희(Vc.), 옥창엽(미디어아트) <The Beginning of a New Journey>





당신의 성년을 지원합니다, 서울청년 문화패스

만 19세라는 나이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민법상 성년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만 19세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도 취득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주택 청약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19세 이상 관람가 영화와 OTT 프로그램도 마음껏 볼 수 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하지만 돌이켜보면 사회적으로 '성년'이라는 호칭을 부여받았을 때는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했고, 하고 싶은 것을 선뜻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특히 학창 시절에는 여러

제약이 있었던 소위 '문화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즐겨야 할지 막연했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세 청년의 시작을 문화생활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을 시작한다.

4월 19일부터 신청을 받는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2004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자) 중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총 28,000명에게 1인당 연간 20만 원의 공연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사업이다. 서울청년문화패스로 관람할 수 있는 공연예술 장르는 연극·뮤지컬·무용·클래식 음악·국악이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문화예술 전문가가 추천하는 작품을 소개해 요즘 가장 '핫'한 공연을 안내하는 길라잡이 역할도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 중에서도 입시 경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가 적었던 만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그동안의 예술 분야 지원 정책이 일방적인 창작지원금 지급에 집중된 것과 달리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예술애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예술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예술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서울시-서울문화재단은 물론 신한은행-신한카드와 4자 간 협약을 맺고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로써 신한은행에서 서울청년문화패스와 연계된 계좌를 개설하기만 하면 신한 체크카드로 손쉽게 20만 원의 문화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2004년생이 있다면 바로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해보자. 2023년 한 해가 문화로 풍요로워질 것이니.



밀레니얼심포니오케스트라

SINCE

2003년 11월

ABOUT

2003년 창단한 순수 민간 교향악단으로, 그간 다양한 교향악 작품과 오페라 공연, 기획 공연 등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건전한 클래식 음악 문화 형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며,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중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MAJOR WORK

2018년 아리랑 페스티벌, 〈Shall We Dance〉, 〈테크닉의 귀재, 라흐마니노프〉, 〈오페라 옴니버스〉, 〈로맨틱 나이트〉, 〈일리아라쉬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3개의 피아노 협주곡〉, 〈하사이시 조 OST 콘서트 디 오케스트라〉, 〈차이코프스키&라흐마니노프〉, 〈베토벤&라흐마니노프〉

MEMBER

이재환(단장), 김주원(총무, 전종건(기획), 백송이(기획), 김희진(악장) 외 단원은 유동적으로 운영

IN 2023

뮤지컬 갈라 콘서트 〈더 컬러즈: 정선아×김호영×조권〉 4월 16일 롯데콘서트홀에서, 〈디즈니 OST 콘서트 with 팬텀〉과 〈하사이시 조 OST 콘서트: 디 오케스트라〉 5월 5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이외에 하반기에도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락앤롤크루 LOCK'N'LOL CREW****SINCE**

2006년 3월

ABOUT

한국을 대표하는 대인원 락킹댄스팀. 국내외 각종 댄스대회에서 입상하며 스트리트 댄스 퍼포먼스 분야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졌다. 댄스·댄스컬 공연뿐만 아니라 댄스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MAJOR WORK

댄스컬 <호락호LOCK하지 않은 도둑들>

MEMBER

한지혜, 정상현, 홍옥현, 김지환, 이인우, 황지희, 이지연, 이소연, 안효주, 임정현, 유영현, 이용욱, 이언주, 윤한을, 고호진, 강리나, 오화영, 김세빈

IN 2023

라이브 밴드와 진행하는 배틀 공연 <댄스투더뮤직>
5월 21일, 댄스컬 <호락호LOCK하지 않은 도둑들>
7월 6일, 스트리트 댄스 배틀 공연 <락스테디파티>는
12월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미술시장 동진의 ‘불씨’ 2023년을 열고 닫는 아시아아트마켓

지난해 9월, 서울은 글로벌 아트신scene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Frieze의 아시아 진출로 각국의 작가·큐레이터·평론가·미술관장·컬렉터가 서울에 모였다. 2013년 아트 바젤Art Basel이 홍콩에 상륙한 이후 오랫동안 아시아 아트마켓의 핫플레이스는 홍콩이었지만, 이제 차세대 허브로 서울이 떠오르고 있다. 본래 2010년대 초반 아시아 미술의 주도권은 중국이 쥐고 있었고, 이때 한국의 많은 갤러리가 중국에 분점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의 불안한 관계,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태도 등으로 해외 미술계는 중국과 홍콩을 대체할 다른 지역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프리즈가 한국을 아시아 거점으로 노린 시기는 2019년 즈음. 프리즈는 제1의 경쟁사인 아트 바젤을 뛰어넘어 아시아 시장을 돌파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키아프 서울Kiaf SEOUL이라는 적절한 모델을 찾았다. 전 세계 미술작품 총거래 규모에 비하면 아직 한참은 작은파이지만, 서울은 2016년부터 페로탱Perrotin·페이스Pace·리만머핀Lehmann Maupin 등 걸출한 갤러리가 분점을 내고, 신흥 컬렉터의 활약이 돋보이는 지역이었다. 2019년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관계자가 파트너십을 맺고 여러 차례 의논한 끝에 2022년 9월 코엑스에서 공동 개최가 성사됐다. 프리즈가 서울을 아시아 거점으로 꼽은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유구한 문화. 풍부한 역사와 세계 정상급 미술관을 보유한 서울은 문화의 트렌드 세터로 여겨만 한다. 둘째, 컬렉터의 잠재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액 자산가HNWI 80%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몰려 있다. 셋째, 거리상 이점. 서울은 베이징·상하이·홍콩·도쿄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넷째, 기반 시설. 서울에는 고급 호텔이 많고 대중교통이 훌륭하게 발달해 있어 외국 손님을 초대하기에 적합하다. 다섯째, 경제 및 정치상. 한국은 자유주의 구조로 빠르게 성장한 세계 최대의 경제국이다.

제1회 프리즈 서울은 대성공이었다. 주최 측은 공정성을 이유로 총판매액을 공개하지 않지만, 키아프 서울과 비교해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후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도 그동안 한껏 부풀었던 기대를 충족해주는 결과가 분명하다. 2006년 이후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불황’은 팬데믹을 전환점 삼아 2021년 ‘불장bull market’으로 반등했다. 온라인 시장 활성화, 젊은 컬렉터의 등장, 보상 소비 심리 발동 등의 요인이 겹쳐 아시아 미술시장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았다. 이 축제의 화룡점정은 명실상부 프리즈 서울이다. 하지만 프리즈 서울을 마주하는 태도는 극명히 갈린다. 홍콩에 이어 서울이 아시아마켓의 허브로 안착할 수 있다는 긍정론과 ‘남의 잔치’로만 끝날 거라는 비판론이다.

이에 프리즈 서울의 수장 패트릭 리Patrick Lee는 ‘프리즈의 힘은 아트페어 개최 도시와의 콜라베레이션에 있다’며 비판론에 대응한다. 그는 “프리즈는 페어를 개최하는 도시와 협력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다. 특히 지역 기관을 행사에 참여시키고 홍보,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프리즈의 역사를 자원 삼아 많은 사람이 서울에 온다는 건 매우 짜릿한 일이다. 프리즈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울이 아시아 미술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최고의 아트페어는 여러 집단의 대화를 촉진하며 좋은 관계를 꾸준히 형성한다. 프리즈 서울이 그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미술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지금, 우리는 시야를 넓혀 21세기 글로벌 미술 시장의 지형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미술 시장의 동진轉進’을 주시해야 한다. 이는 좋게 말해 글로벌이지, 엄밀히 따지면 서구 강대국의 아시아 시장

점령과 다름없다. 프리즈의 서울도 이러한 국제 아트페어의 전략적 구도에서 봐야 한다. 2023년 아시아아트마켓의 포문은 제1회 ART SG가 열었다. ART SG는 2011년 출범해 2018년까지 지속된 아트 스테이지 싱가포르ART STAGE Singapore의 바통을 이어받아, 아시아의 남북 라인을 잇는 아트페어로서 위상을 노리고 있다. 경제 대국이면서 미술 시장 점유율은 한참 떨어지는 일본도 마침내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도쿄 겐다이, 11월에는 아트위크 도쿄가 열린다. 특히 아트위크 도쿄는 기존 아트페어 도쿄의 경영 자본에 아트 바젤을 끌어들이며 글로벌 전략을 꾀하고 있다. 결국 홍콩·서울·싱가포르와 함께 도쿄·자카르타 등이 아시아 미술의 키플레이어로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단색화 열풍과 함께 내로라하는 해외 갤러리가 서울에 등지를 틀기 시작하면서 한국에도 글로벌 마켓의 봄바람이 불었다. 2016년 4월 삼청동 페로탱이 첫 주자로 나섰고, 2017년 3월 한남동 페이스 갤러리와 12월 삼청동 리만머핀이 이어서 깃발을 올렸다. 당시 한국 아트신은 세 갤러리가 물고 올 신선한 바람에 기대가 부풀었고, ‘삼청동 문화 벨트’니 ‘한남동 아트 디스트릭트’니 하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다. 하지만 그 흥분은 얼마 못 가 급속도로 식었다. 사실상 전시장보다 ‘쇼룸’에 가까운 규모, 젊은 한국 작가가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 수출 없이 수입만 지속하는 불균형 구조에 이들의 존재감은 희미해져 갔다.

그러나 프리즈 서울을 기점으로 더 많은 메이저 갤러리가 서울에 유입됐고, 이제 이들은 해외 작가의 전시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한국 작가를 조명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우리는 이 불씨를 이어 나가기 위해 지금보다 ‘한국’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에 지점을 둔 글로벌 갤러리들은 한국 아트신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지역 미술을 연구하고 신진 작가를 적극적으로 영입, 육성해야 한다. 아시아 아트마켓의 부흥이 서구 입맛을 돋우는 짧은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들에게 먼저 건강한 미술 생태계와 상생 관계를 위한 책임감을 촉구해야 한다.

AI는 모작의 대가인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예술 창작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앤디 워홀
스타일로, 말을 타고 있는 우주인을 그려줘’라고
입력하면 순식간에 그럴듯한 그림이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렘브란트 미술관Museum
Rembrandthuis 등이 협업한 ‘더 넥스트 렘브란트The

Next Rembrandt’ 프로젝트2016는 18개월간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Rembrandt, 1606-1669의 그림 364점을
학습해 ‘렘브란트가 그리지 않은 렘브란트
그림’을 충실히 재현해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2021년 9월엔 ‘베토벤이 완성하지 못한
베토벤 교향곡 10번(미완성 교향곡)’이 ‘완성’되어
본베토벤오케스트라Beethoven Orchester Bonn
연주로 초연됐다. 음악학자·음악사가 등 전문가와
인공지능이 협업해 베토벤의 생전 메모와 기존
곡을 바탕으로 빈 곳을 채워넣은 것이다. 베토벤
전문가들조차도 베토벤이 직접 쓴 ‘원본’ 부분과
인공지능이 채워넣은 부분을 구분해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통해 어떤 스타일을 학습해 모방하는

것에 강하다. 개리마커스Gary Marcus 뉴욕대
교수는 생성형 시를 두고 ‘모작pastiche’의 대가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시가 창조해낸
‘○○ 스타일’의 그림을 보고 있다면 놀랄 만하다.

그런데 이런 모작은 비단 시만의
특기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작 작가가
존재해왔다. 이들은 단순히 유명 작품을 베끼는
게 아니라, 한 작가의 스타일을 철저히 학습해
자기 것으로 만든 뒤 ‘세상에 없는 대가의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2006년 쾰른
렘퍼러츠Kunsthau Lempertz 경매에서 약 290만
유로에 거래돼 역대 독일 현대 화가 작품 중 최고가
경매액을 기록한 하인리히 캄펜돈크Heinrich
Campendonk, 1889-1957의 〈붉은 그림과 말〉은
“현대 미술의 지평을 연 핵심 작품”이라고까지



극찬받았다. 하지만 이 그림은 알고 보니 현대의 위작 작가인 볼프강 벨트라키[Wolfgang Beltracchi]가 캄펜동크 스타일로 완벽하게 그려낸 '원본 없는 작품'이었다. FBI의 수사망을 피해 자서전까지 쓴 위작 작가 켄 페레니[Ken Perenyi] 역시 주로 18~19세기 네덜란드·영국·미국의 유명 화가들의 '존재하지 않는 원본'을 양산해냈다. 거의 인공지는 수준의 눈썰미와 학습 능력, 그리고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열렬히 원했던 구매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위조미술 감정의 대가 토머스 호빙[Thomas Hoving]은 『짜퉁 미술사[False Impressions: The Hunt for Big-Time Art Fakes]』에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소장품 5천 점을 조사하곤 이렇게 말한다. “무려 40퍼센트가 위조품이거나 너무나 ‘위선적으로’ 복원된 작품, 혹은 다른 작품으로 오인되고 있어



↑ 2006년 경매에서 하인리히 캄펜동크의 위작으로 밝혀진 작품
← ‘더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로 완성된 ‘렘브란트가 그리지 않은 렘브란트 그림’ ©Wunderman Thompson

위작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작품들이었다.” 진짜 뛰어난 위작들은 여전히 진품으로 갤러리에 걸려 있다.

이처럼 위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진품’을 사랑하고 이를 추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스타일’ 그 자체보다도 그의 스타일을 만들어낸 작가의 삶의 굴곡과 투쟁 때문일 것이다. 스타일은 어떤 작가의 독자성을 드러내주는 개성적인 표지다. 진정성 있는 스타일은 그의 삶의 방향, 투쟁의 결과에서 우러나온다. 전쟁과 재난 현장을 주로 찍는 사진 작가인 제임스 나흐트웨이[James Nachtwey, 1948~]는 망원렌즈를 쓰지 않고 반드시 가까이 다가가서 피사체를 찍는다. 대상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현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60세까지 무명 신세를 면치 못했던 객관주의 시인 찰스 레즈니코프[Charles Reznikoff, 1894~1976]의 건조하지만 짙 찬 시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한 후” 시를 써야만 했던 시인의 고단한 삶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즉, 이들의 작품에 깃든 스타일은 이들의 삶과 절대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작 작가 볼프강 벨트라키의 삶을 그린 독일 다큐멘터리

〈벨트라키〉2014에 출연한 한 미술 전문가는 위작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단지 그의 스타일로 그려진 그림일 뿐이다. 거기엔 20세기 초반 작품들에 내재한 비극이나 눈물, 역사적 맥락이 없다.”

스타일이 ‘삶’에 깃든 것일진대, 그 스타일이라는 것 역시 대개 삶만큼이나 울퉁불퉁하기 마련이다. 도나텔로와 고틀레는 30대 후반에 작품 스타일에 상당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의 삶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단테는 정치적 반역자로 기소돼 37살에 피렌체에서 영구 추방당한 뒤 필생의大作인 『신곡』을 쓰기 시작했다. 만약 그런 내·외부적 사건과 환경이 없었다면 이들의 작품은 지금의 형태로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람들을 강력하게 붙드는 힘을 내포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걱정한다. 이젠 AI로 인해 베토벤과 셰익스피어가 영원히 눈을 감지 않고, 이들의 유령이 영원히 창작을 지속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만약 셰익스피어가 2023년을 살아가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을 ‘17세기 스타일’로 글을 쓸 리가 없을 것이며, (어쩌면 그는 글을 쓰는 대신 다른 걸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베토벤처럼 도전적인 작곡가가 ‘18세기 스타일’에 머물러 있을 리 없다는 것이다.

홍콩의 예술적인 재도약을 기대하는 이유

홍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맛있는 음식, 고층 빌딩, 바쁘게 움직이는 금융인의 모습, 즐비한 쇼핑거리.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미술 애호가들이 작품을 사고파는 모습일 것이다. 특히 3월은 홍콩의 미술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홍콩으로 모여드는 특별한 시즌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아트페어라 불리는 아트 바젤 Art Basel이 홍콩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홍콩이 미술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다른 국가와는 다른 특별한 배경이 존재한다. 보통은 도시로 이주한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예술공간이 형성되고 이후 미술관·갤러리와 같은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소위 말해 '예술인scene'이 형성된다. 하지만 홍콩의 미술은 경매로 시작됐다. 크리스티·소더비 같은 메이저 경매사가 홍콩에서 경매를 개최하면서 그 뒤 서구의 굵직한 대형 갤러리들이 홍콩에 지점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970년 스위스에서 출발한 아트 바젤의 첫 번째 아시아 지점으로 홍콩이 지목되면서 홍콩의 예술은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홍콩은 아시아의 아트 바젤 개최국이 될 수 있었을까? 가장 큰 요인으로는 무관세 정책을 들 수 있다. 중국이 미술품에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홍콩은 수출입 관세를 없앴다. 그 때문에 미술품을 매매할 때 세금 부담이 적고, 이는 컬렉터에게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한다. 또한 홍콩은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비행기로 4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또한 홍콩은 영어 소통이 원활해 언어 장벽이 낮은 편이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 비싼 임대료를 감수하고라도 홍콩에 유수 갤러리를 유치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도시였던 홍콩은 코로나19 이후 엄격한 방역 정책과 일련의

→ 미술관과 쇼핑몰을 합쳐놓은 구조의 K11 MUSEA
©Ronald Lu & Partners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때문에 올해 열리는 아트 바젤 홍콩의 성과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대거나 더 이상 홍콩이 아시아 예술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잃었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홍콩이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예술의 중심지가 되고자 준비하는 모습으로 분주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로 2021년 11월에 개관한 뮤지엄 M+를 이야기할 수 있다. 2006년 미술관 설립이 확정된 이후에 무려 15년간 준비를 거쳐 오픈한 M+는 동시대 미술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야심 찬 포부를 담고 있다. 특히 M+ 정도련(Doryun Chong) 부관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20세기 미술관 그 이상(more than museum)의 21세기형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회화·조각 등 순수미술뿐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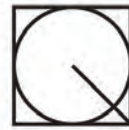
디자인·건축·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까지 모두 아우르는 현대미술관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에 걸맞게 오픈한 지 2년 차에 접어드는 M+에서는 그간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여왔고, 한화 약 772억 원에 낙찰된 NFT 아트의 주인공 비플(Beeple)의 실물 작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등 미술관으로서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이고 있다.

그뿐 아니라 홍콩 서구룡 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에는 새로운 거대 문화공간이 몇 군데 더 생겼다. 대표적으로는 K11 MUSEA가 있다. 미술관과 쇼핑몰을 합쳐놓은 구조로, 쇼핑하면서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K11 MUSEA는 전 세계 유명 예술가 100여 명이 모여 만들었고, 그 덕분에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독특한 공간 구성을 자랑한다. 전시 작품 또한

↑ 2021년 개관한 M+의 입지 ©Kevin Mak/HdM

매번 바뀌기 때문에 마치 쇼핑몰이나 미술관에 들르듯 자주 방문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곳이다. 이외에도 홍콩 고궁박물관(Hong Kong Palace Museum)을 상기할 만하고, 한국의 아르떼뮤지엄이 홍콩에 진출하기도 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술품 거래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예술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더 큰 차원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홍콩에 거주하며 느끼는 분명한 점은 아트 바젤의 성과와 무관하게 홍콩이 그려가는 새로운 예술적인 움직임이 주목할 만하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갤러리와 미술관, 도시를 채우는 공공미술, 곳곳에 세워진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공간의 조화로 이 도시가 그려나갈 예술신을 기대해본다.



QUAD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2023년

대학로극장 쿼드 공연장 정기대관 공고

접수기간

2023.4.3(월) 10:00 ~

2023.4.21(금) 17:00

www.sfac.or.kr



Column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이 봄, 주인공이 되어

일상 결의 공예

브랜드는 왜 공예가를 후원할까?

삶의 책장을 넘기며

책이 소개해준 '구체적인 얼굴들'

동시대적 고전 읽기

지워진 몸들의 항변

illustr ©slowrecipe

이 봄, 주인공이 되어

김호경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 저자

바쁜 프리랜서라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생각한 밤이었다. 태어난 지 이제 17개월이 된 작은 아이를 재우고 쌓인 설거지거리와 어지러운 거실을 내려다보며, 미처 끝내지 못한 일들을 떠올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바쁜 직장인, 안 바쁜 직장인, 안 바쁜 프리랜서까지 모두 경험해본 바바쁜 프리랜서가 제일 낫다. 바쁜 직장인이었을 땐 정답이 없는 자기 질문에 늘 갇혀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재는 노는데 왜 나만 일하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이 맞나, 나는 누구인가 같은. 안 바쁜 직장인 시절도 나름대로 고역이었다. 화장실을 오가고 커피 한잔 마시는 일까지 눈치가 보여 종일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곤 했으니까. 가장 고단한 걸로 치면 안 바쁜 프리랜서일 때다. 태만한 백수와는 다르다는 걸 세상을 향해 설명하느라 고달팠다. 그러니 바쁜 프리랜서란 얼마나 행복한가, 하며 입꼬리 근육을 힘차게 끌어올릴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의 일정을 미루자는 연락을 받고 반가움을 느끼며 빠르게 이불 속으로 기어들었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쫓기듯 일하고 육아하던 매일매일에서 잠시 빠져나와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기회다. 무엇보다 봄 아닌가! 몸이 마음을 따르기까지 수십 분쯤 걸리긴 했지만, 얇은 티셔츠에 경량 패딩을 걸쳐 입고, 깨끗한 흰 운동화를 꺼내 신으니 그 자체로 뭔가 좀 기쁜해진 기분이 들었다.

남산공원을 걷기 시작하며 Shakira의 'Try Everything'을 들었다. 평소 자동차 안에서 운전하며 들던 음울한 분위기의 연주곡들이란 어쩐지 겨우내 묵은 먼지처럼 느껴져 훌훌 넘겨 버렸다. 스포티파이가 만들어놓은 '봄 플레이리스트'로 활기를 좀 찾아볼까 하다 Counting Crows의 'Accidentally In Love'를 만났고, 이 곡이 나의 추억을 해집어 좋아했던 기억을 찾아냈다. Shakira가 한참 인기를 끌던



시기에는 '캔디' 같은 한국의 유행가를 따라 부르던 초등학교생이었던 탓에 보컬에 대한 친밀도는 높지 않지만, 작곡가인 Sla에게는 커다란 애정이 있다. 이 곡이 삽입된 디즈니 영화 <주토피아>에도.



Shakira
'Try Everything'
(영화 <주토피아>
사운드트랙)

그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짙한 날씨처럼 희망적인 애니메이션 OST를 들으며 오르니 발걸음도 점점 음악과 닮아졌다. 한 발 한 발 탁탁 돌계단과 부딪히는 발소리, 금세 가빠지는 호흡. 잡념을 위해 쓰던 에너지가 하나둘 몸으로 집중되고, 머릿속에 꼭 붙들고 있던 것들, 사소하고 사사로운 기억도 조금씩 지워졌다. 어떠한 연유로 집요하게 붙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순간까지도. 주변의 풍경과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게 될 만큼 숨이 찼을 땐 남산타워가 눈앞에 있었다. 35분쯤 쉬지 않고 빠르게 걸어 오른 나는 팔각정에 다다르자마자 뒤로 누워 버렸다.

Sla의 멜로디는 듣는 이의 마음을 고양하는 힘이 있다. 작곡가 스스로 어둡고 불행한 과거를 밝힌 바 있고, 삶의 불안이나 우울감, 두려움의 감정을 음악이나 음악 외 활동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멜로디로 내질러지는 그 마지막 표현에는 시원스러운 활기분함이 묻어난다. 특히 이 곡은 Sla의 여러 명곡 중 가장 밝고 예쁜 응원이다. 거칠 것 없이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뭐든 잘될 거라고 말하는 듯한 격려. 무려 제목도 'Try Everything'이다. 불어오는 봄을 온몸으로 마중하며 이 계절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

천천히 돌아내려가며

"인생은 뮤지컬이나 애니메이션이 아니야. 노래만 부른다고 뭐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영화 <주토피아>에 나오는 몇몇 좋아하는 대사 중 이 말이 문득 떠올라 웃음이 났다. 주인공 토끼 순경 주디를 향해 물소 경찰서장 보고가 하는 말이다. 보고는 차갑고 엄격한 성격의 인물 아니, 동물이지만 꽤 좋은 선배이기도 하다. 주디가 기대에 들떠 실수하지 않도록 질서와 규칙을 알려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도움도 준다. 나에게도 보고 같은 선배가 있었다면 직장생활을 잘 해냈으려나.

보고의 말처럼 활기찬 노래를 듣고 부른다고 세상의 주인공이 될 리도, 삶이 마냥 행복하지만 할 리도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음악은 이렇게 즐거운 '잠깐'을 만들고, 그 순간의 힘으로 일상을 또 잘 영위하게 되는 것 아닐까. 서울을 한눈에 담고 다시 에너지를 채운 후 아이에게 돌아가는 이 순간처럼.

내리막길에는 프랑스 작곡가 가브리엘 포레(Gabriel Fauré)의 돌리 모음곡 Dolly Suite 첫 번째 곡을 들었다. 봄기운을 마치 피아노로



그린 듯한 사랑스럽고 애뜻한 곡이다. 제목은 '자장가'. 한 대의 피아노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연주하는 연탄곡으로, 한 사람이 비슷한 리듬 패턴의 아르페지오를 반복하면 다른 한 사람이 옥타브로 이루어진 단순한,

그러면서도 맑고 예쁜 멜로디를 들려준다. 아기를 기만히 흔들며 새근새근 재우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고, 그저 따뜻하고 다정한 기운을 채우기에도 좋은 선곡이다.



Gabriel Fauré,
Dolly Suite, Op. 56:
I. Berceuse

여러 작곡가가 자신의 아이 혹은 주변의 아이를 위한 곡을 남겨두었는데, 이를테면 슈만의 어린이 정경이나 드뷔시의 어린이 세계, 차이콥스키의 어린이를 위한 앨범 같은, 대부분 피아노 한 대를 위해 쓴 예쁘고 다정한 곡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서도 어린이를 향한 각기 다른 정서가 묻어난다. 예컨대 슈만이 몽환적인 분위기로



선우정아 '우리네 봄'

애뜻한 마음을 전한다면 드뷔시는 또렷한 생동감을 들려준다. 그에 반해 포레는 작은 아이를 품에 꼭 안을 때처럼 순수한 아름다움을 그려두었다. 숨을 후 내쉬며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느리게 걸기에 좋은 짧고 다정한 이야기가 된다.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재생한 선우정아의 '우리네 봄'은 꽤 멋진 엔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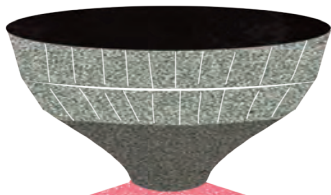
같은 곡이었다. 따뜻한 차를 컵에 따르르 따르는 소리로 시작해 마치 동요 같은 왈츠 리듬에 맞추어 현실적인 장면을 묘사한다.

“봄바람 살며시 불어오네/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있을까/하루에도 몇 번씩/먼 산만 바라보네/거기 우리가 꾸던 꿈 걸려있네.”

먼 산만 바라보듯 바보같이 사는 나,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부는 봄바람. 'Try Everything'보다는 이쪽이 현실과 가깝긴 하다. 이 곡은 한숨이 폭 쉬어지는 마음을 콧노래 같은 흥얼거림으로 부르며 그 무게를 덜어낸다. 한탄도 하고 춤도 추고, 멀리 걸린 꿈도 쫓아보자는 조심스러운 다독임이다.

몸을 깨우고 음악에 힘을 빌리니 다시 찾아온 멋진 계절이 조금은 내 것 같다.



브랜드는 왜 공예가를 후원할까?

박은영 공예·디자인 애호가

기업의 브랜드 캠페인은 대부분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합니다. 오랜 역사와 브랜드 고유의 뛰어난 기술력,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들이 장인 정신을 강조합니다. 장인 정신이란 한 가지 기술에 통달할 만큼 오랫동안 전념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장인 정신을 강조하며 공예가의 후원자로 나서는 브랜드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예가들의 작품 세계에 빚대 캠페인 하는 방식이죠.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에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며 집 꾸미기가 대중적 관심을 받았는데, 좀 더 특별한 물건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예가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브랜드와

공예가의 협업 캠페인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죠. 그저 공예가를 소비하는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공예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유통 채널을 만드는 등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젊은 공예가는 브랜드의 명성을 빌려 작품을 알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중 지난해 글로벌 캠페인 로에베 크래프트 프라이즈(LOEWE Craft Prize) 이하 로에베 공예상)에서 한국인 수상자가 나와 국제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주 출신의 정다혜 작가가 제주의 오랜 전통 공예 중 하나인 말총 공예 기법을 자신의 이야기로 엮어 만든 '기뻐' 형태의 작품 <성실의 시간>을 선보였죠. 로에베 공예상은 1년에 단 한 명의

우승자를 선정하는데, 전 세계 공예가들이 가장 탐내는 우승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금 5만 유로(한화 약 7천만 원)를 받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1846년 스페인에서 가죽 공방으로 시작한 로에베는 대부분의 유럽 럭셔리 브랜드가 그러하듯 최고 수준의 수공예 역사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1984년생의 젊은 디자이너 조너선 앤더슨(Jonathan Anderson)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하며 가죽 명가에서 감각있는 패션 브랜드로 거듭났죠. 그는 2017년 로에베 공예상을 제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패션디자이너가 오늘날 가장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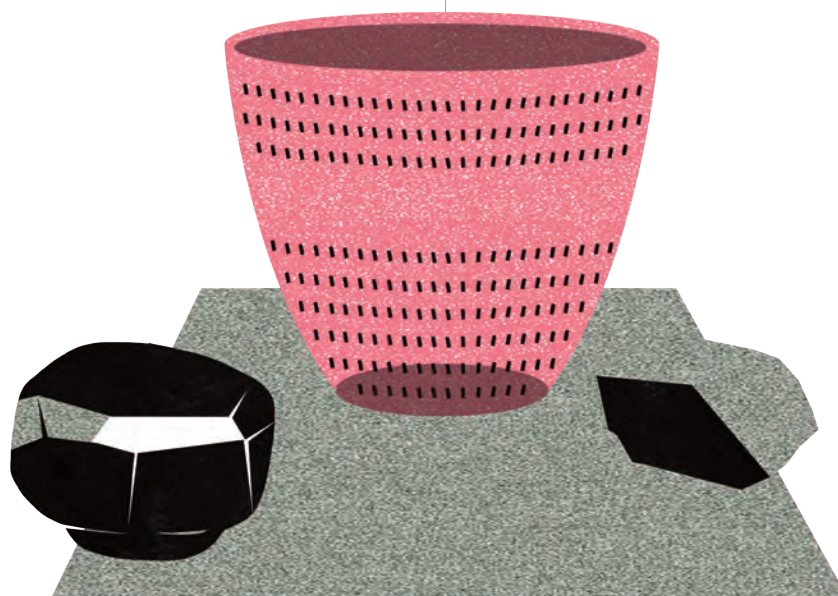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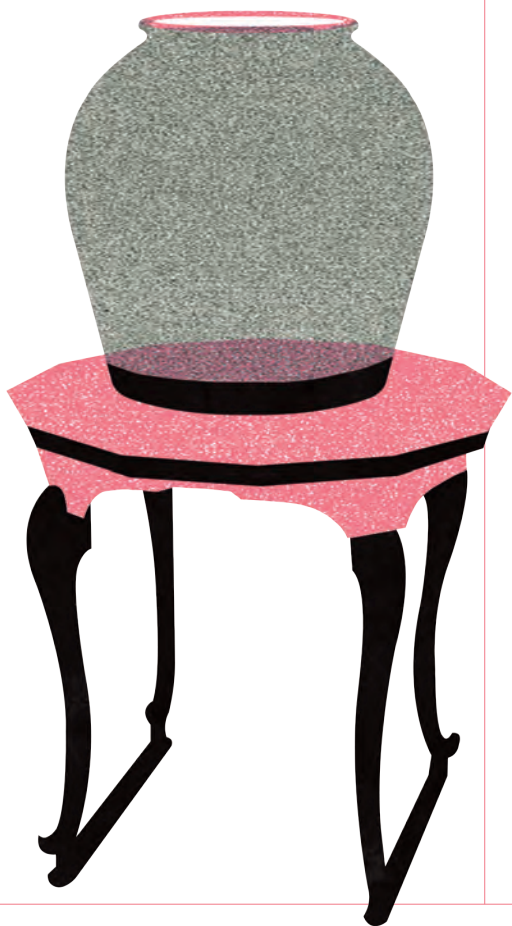
하나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뼈대를 이루는 공예가 대중에게, 그리고 심지어 업계 내에서도 평가절하되는 현실이 무척 아이러니하다고 본 거죠. 이것이 로에베가 공예의 위상을 가시적으로 향상하는 것을 그 취지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그는 공예가들이 작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상업적 압박에서 벗어나야만 그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공예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작업을 계속해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따라서 상금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참가자들이 로에베 공예상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더 좋은 기회를 더 자주 얻도록 돕는 것이 로에베 공예상의 진정한 순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 렉서스Lexus가 2017년부터 전개하는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즈 프로젝트도 국내 공예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렉서스가 자신들의 장인 정신을 말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렉서스는 ‘타쿠미 정신’ 혹은 ‘크래프트맨십(craftsmanship)’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타쿠미’는 장인이란 뜻으로, 렉서스에서 특별한 기술과 감각, 경험을 지닌 직원을 이르는 호칭입니다. 드라이빙 마이스터부터 페인트, 용접, 바느질 등 렉서스 자동차를 만드는 다양한 공정에서 일하는 타쿠미들은 세심한 감각을 통해 공정상의 사소한 오차를 잡아내고 프로세스의 완성률을 높입니다. 렉서스 생산직 직원 가운데 2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대상자들이 3개월 이상 집중 교육을 받은 뒤 타쿠미로 거듭난다고 하네요. 이렇게 교육하는 이유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자동화된다고 해도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훈련을 거친 타쿠미의 오감은 기계가 찾지 못하는 1mm 이하의 오차도 촉감으로 잡아내고, 자동차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도 포착해냅니다. 렉서스는 사람의 오감이 지켜내는 최고 수준의 완벽함을 크래프트맨십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장인 정신을 자동차뿐 아니라 일상 속 다양한 물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회사인 렉서스가 공예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갈 수 있는 생태계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공예가를 지원하는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즈 프로젝트를 만든 이유죠. 최종 우승자 1명과 파이널리스트 4명에게 상금을 지원하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시와 마켓 출품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공예가들과 협업하는 브랜드 중 눈에 띄는 브랜드 하나를 더 언급한다면 발베니The Balvenie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정통 수제 싱글몰트 위스키 발베니는 1892년 증류소 설립 이래 지금까지 전통 방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리 재배부터 경작, 물팅malting, 증류, 오크통 제작, 숙성 등 전 과정에 있어 수십 년 경력을 지닌 장인을 통해 전통 수작업 방식을 거치고 있죠. 이에 발베니 코리아는 브랜드 정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공예가들과 함께 발베니 메이커스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발베니 위스키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에디션과 작가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장인들의 작품을 빌어 전통과 수공예의 장인 정신을, 현대 공예가들의 작품을 빌어 시대에 발맞춰 진화하는 브랜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반장 김춘식은 나주소반의 곡선미 넘치는 다리를 더욱 날렵하고 길게 늘어 위스키를 올려두고 마실 수 있게 만든 녹색 테이블을 선보이고, 선자장 김동식은 발베니의 오크통 조각을 합죽선 변죽에 사용해 부채를 펼칠 때마다 은은한 위스키 향이 나도록 했습니다. 옷칠 공예가 정해조는 위스키 잔을 만들고, 염장 조대용이 대나무와 실크 마감의 발을 만들어 전시장 곳곳에 드리웠습니다. 채상장 서신정과 소목장 소병진이 함께 만든 위스키병을 위한 선물함과 장식장이 주목받기도 했죠.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다양한 메세나 활동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예 교육에도 적극적입니다. 공예는 안목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교육이며, 이는 곧 자신들의 미래 고객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기업이 문화예술 활동에 자금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활동을 '메세나'라고 하는데, 주로 순수미술·공연·음악 등에서 이루어지던 메세나 활동이 최근 국내에서 리빙 트렌드와 맞물리며 공예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아마도 에르메스의 메세나 철학과 비슷한 이유 아닐까요?

책이 소개해준 '구체적인 얼굴들'

손정승 작가



지금, 이 글은 일본 도쿄에서 쓰고 있다. 사는 걸 흥내 내는 두 달짜리 여행을 온 것이다. 퇴사 후 한정된 돈으로 짧게 멀리 갈 것이냐 가까운 곳을 길게 갈 것이냐를 정해야했을 때 나는 후자를 택했다. 생김새도 쓰는 말도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비슷해서 내가 소수자인 게 대번에 눈에 띄지는 않는 곳. 마음 같아선 지구 반대편의 신선한 풍경과 문화를 잔뜩 흡수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력이 없었다. 낯선 곳에서 나날이 긴장하는 것보다 조금이나마 더 편히 지내고 싶었다. 그런 내게 출국 직전에 출간된 『작가 피정』2023(노시내 저, 마티)은 여행 내내 조곤조곤 대화할 수 있는 동반자로 삼기 충분했다.

책의 저자 노시내는 번역가이자 작가다. 한국계 미국 작가 캐시 박 홍Cathy Park Hong의 자전적 에세이 『마이너 필링스』2021를 비롯해 『이탈리아 사람들』2017(존 후퍼John Hooper 저), 『진정성이라는 거짓말』2016(앤드류 포터Andrew Potter 저), 『사랑, 예술, 정치의 실험 파리 좌안: 1940-50』2019(아녜스 푸아리에Agnès Poirier 저) 등 책을 옮겼고 『스위스 방명록』2015과 『빈을 소개합니다』2013를 썼다. 이 모든 작업은 한국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저자는 26년 넘게 생의 절반을 타국에서 보내고 있으며, 현재는 여섯 번째 나라인 파키스탄에서 열 번째 도시인 이슬라마바드에 거주하고 있다. 『작가 피정』도 편도 수술과 회복을 위해 파키스탄 직전에 살았던 스위스에서 40일간 나 홀로 생활하며 써 내려간 글인데, 40일짜리 일기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지구 한바퀴를 돌아 지난 26년의 시공간과 감각이 담겨 있다. 미국·일본·파키스탄·러시아·스위스·한국이라는 곳과 강산이 세 번째 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을 경계인이자 소수자로 살아온 ‘마이너 필링스Minor Feelings’ 말이다.

책에 관해 두괄식으로 거칠게 소개하자면 마이너 필링스를 경험한 소수자들의 성토장이 아니다. 저자는 지난 시간을 켜켜이 들추다가도 철저히 현재에 발 딛고서 이내 고개를 들어 미래를 본다. 자신이 살았던 나라와 만났던 민족의 역사부터 음식, 정치, 사회, 문화, 환경까지 경계인과 소수자라는 두 레이어로 꼼꼼하게 짚으며 나아간다. 이 거대한 이야기를 지치지 않고 흥미롭게 좇을 수 있었던 건 저자가 내게 ‘구체적인 얼굴들’을 소개해주었기 때문이다.

가령 이런 식이다. 현재 사는 나라의 국민들을 파키스탄인이라고 몽뚱그리지 않고 연보라색 토끼 인형을 사는 것에서 시작해 그 인형을 받는 남편의 동료 우마르 집에 초대받아 음식을 나눴던 시간을 들려주고, 러시아인에 대해서도 반푸틴 성향의 국민도 많다는 정도의 설명에 그치는 대신 과자집 앞줄에 서서 자신들에게 불쑥 과자를 건네던 러시아 아저씨를 비롯해 소박하고 잔정 있는 러시아인들의 얼굴을 하나씩 불러낸다.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마음과는 또 별개로, 이번 침공으로 러시아 정권만이 아니라 자칫 러시아 사람들 전체가 악한 마음으로 비칠까 봐 마음 아파한(→ 32쪽) 저자의 진심이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한국을 떠나 가장 오래 살았던 미국에 대해서는 옛정에 호물거리지 않고 서늘하고 예리하게 꼬집기도 한다. 저자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연결된 얼굴을 알게 되면 그를, 그가 속한 사회를 쉽게 납작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나도 구체적인 얼굴들을 만나러 일본에 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일본인’이라고 여겼던 내게도 친구가 생긴 것이다. 마주 보는 눈동자가 생기고 서로의 언어를 절반씩 섞어가며 대화하는 입이 생기고, 보고 싶다며 메시지를 건네는 손이 생겼다.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서울에 와서 서대문형무소에 들르는 걸음을 직접 보았다. 경계 위를

조심히, 성실히 걸어 일본 사회로 진입한 나의 한국 친구도 이곳에 있다. 이 얼굴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마주치는 얼굴들도 매일 새롭게 생겨난다. 편의점에서 만난 외국인 노동자, 아이 둘을 안고서 지하철에 타는 엄마 아빠, 목발을 짚고 공원에 산책 나온 이, 신주쿠역 근처 굴다리의 노숙자, 곱게 차려입고 모닝커피를 마시는 어르신, 케이크 집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앳된 얼굴의 학생… 아는 얼굴이 생기면 그를 둘러싼 상황에도 관심이 생긴다. 그 사람이 안전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먹는 음식, 숨 쉬는 공기, 그의 삶을 지탱해줄 법안, 매일 살아갈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히 궁금해지고, 가능하다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진다.

3년 만에 온 도쿄는 바뀐 것이 많았지만 나의 신분은 여전하다. 다른 언어를 쓰는 젊은 한국 여성이라는 소수자. 내가 구사할 수 있는 단어의 가짓수에 따라, 나이와 생김새에 따라 나는 한국에서보다도 더 약자로 분류된다. 이만큼 안전한 도시가 드물다는 것도 알고 여행자가 받을 수 있는 호의를 충분히 받으며 지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움츠러들 때가 있다. 그럴 때면 평소에 당연히 누리는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 내가 대단히 뭔가를 잘 깨닫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지나온 시간을 곰곰 짚어보면 누구나 한번은 있을 것이다. 내 자리가 불시에 소수자 위치로 전환되던 순간이.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문화, 신체, 정치적으로든 간에 말이다.

그런 느낌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다면, 황정은의 『일기』2021 속 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정치적이라는 말을 듣곤 한다. 그런데 나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굳이 ‘너무 정치적’이라고 말하면 그저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그건 너무 정치적, 이라고 말할 때 나는 그 말을 대개 이런 고백으로 듣는다. 나는 그 일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133-134쪽]

여행길이 속속들이 시원하게 열리고 있다. 수년간 삶의 터전에 발 딛 붙이고 사느라 애쓴 나를 먹이고 마시고 놀게 하는 일은 예상보다 훨씬 더 즐겁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까닭은 분명 이 책이 있어서다. 책에서

만난 얼굴들이 있고, 책이 가리키는 새로운 얼굴들이 있다. 나는 그 얼굴을 잘 기억하고 싶어서 오래 바라본다. 길게 떠나와서야, 절대 석일 수 없는 곳에 와서는야 말이다. 부디 이 감각이 서울에 돌아가서도 유지되길 바라는 한편, 노시내 번역가가 힘껏 공명하며 번역했을 책들이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에 조금 설레기 시작했다. 그걸 다 읽고 난 내게 서울은 또 어떤 도시로 다가올까. 그것이 몹시 궁금하고 기다려진다.

나에게 역사적 인물, 리처드 3세의 몸과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셰익스피어가 이 역사적 인물에게 그동안 얼마나 왜곡된 인식을 갖게 했는지도 크게 마음이 쓰이지 않는다. <리처드 3세>는 허구이기에, 역사와 허구를 구별해 읽는 것은 독자·관객의 몫일 것이다. 게다가 역사 속 리처드 3세는 어떤 몸으로 어떤 삶을 살았던 끝내 왕좌에 올랐던 백인 남성이다. 아마도 장애처럼, 그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특질을 포함해 그 어떤 이유로든 억압과 차별에 크게 취약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었고, 역사가들은 나의 추측을 어느 정도 승인했다. 역사의 승자들에게 의해 악독한 폭군으로 묘사되었을 뿐, 그는 신실했고, 형제와 조카의 죽음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며, 아내 앤과 화목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왕이 되었고, 왕으로 죽었다.

지워진 몸들의 항변

전영지 공연칼럼니스트·드라마터그

2012년 9월, 리처드 3세Richard III, 1452-1485의 유골이 영국 레스터의 한 공용 주차장에서 발굴됐다. 왕위 계승을 놓고 30년간 이어졌던 장미전쟁의 마지막 결전지, 보즈워스Bosworth 전투에서 서른두 살의 나이에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요크 왕조의 마지막 왕, 리처드 3세가 527년 만에 발견된 것이다. 레스터 대학 발굴팀은 유골 분석을 통해 그가 172cm의 호리호리한 체격으로, 척추측만증이 있었을지언정 웃만 갓취 입으면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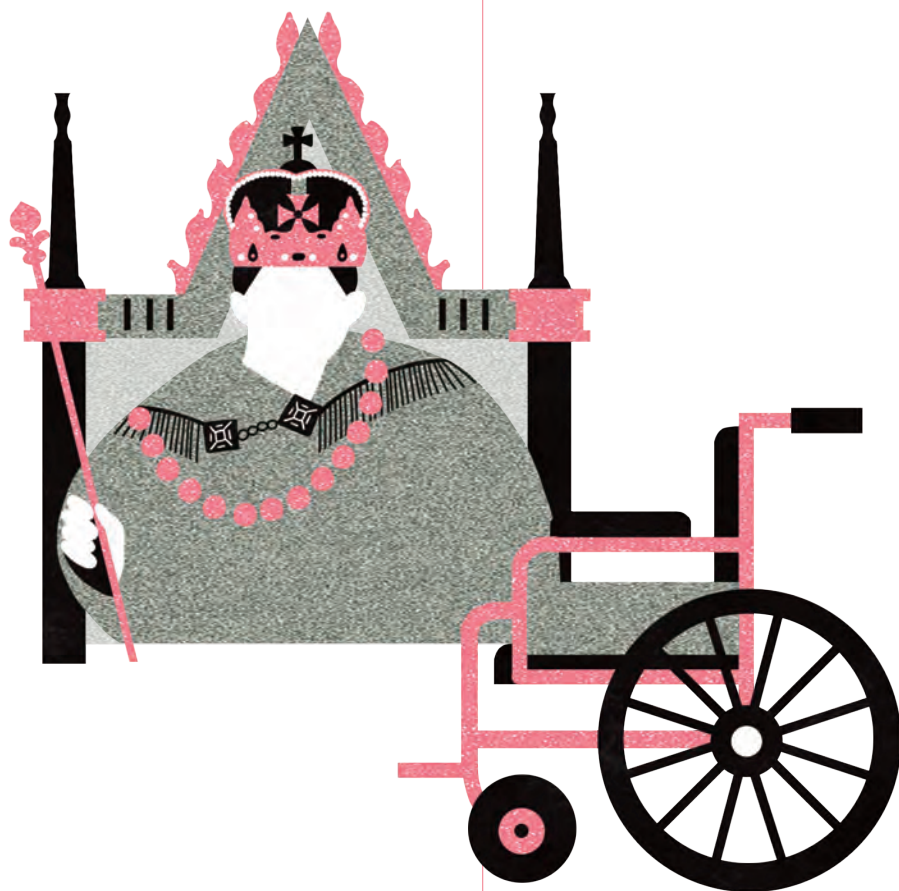
이처럼 발굴된 진실이 ‘역사의 패자’ 리처드 3세를 오랜 오해에서 구해낼 법도 했으나, 이야기는 그리 쉽게 전복되지

않았다. 2016년 BBC는 셰익스피어 타계 400주년을 기념해 TV 시리즈 <텅 빈 왕관The Hollow Crown>을 제작하며 리처드 3세 역에 베네딕트 컴버배치Benedict Cumberbatch를 캐스팅했는데, 컴버배치는 여지없이 육중한 보형물을 등에 얹고 연기했다. 심지어 그는 리처드 3세의 유골이 다시 안치될 때 추도사를 읽기도 한, 리처드 3세의 후손으로 알려진 배우인데도 말이다. 진실이 무엇이든, 못사람들의 마음속 ‘리처드 3세’는 셰익스피어가—추측건대 의도적으로 과장해—창조한 ‘뒤틀린 몸의 불구’여야만 했기 때문일 것이다.

역사가들이 들으면 경악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2023년을 살고 있는 한국인인

진정으로 오래도록 나의 마음을 어지럽혀 온 것은, <리처드 3세>가 ‘보통과 다른 몸’들에게 해온 일이다. 기실 <리처드 3세>는 오래도록 신체장애가 인물의 성격적 흠결을 구체화하는 효과적인—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게으른’—이야기 공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처럼 언급되곤 했다. 무대에 오르면 이 낡은 공식은 더욱더 강력해지곤 했는데, 장애인 캐릭터를 연기한 비장애인 배우들이 공연이 끝나면 공연 내내 구부렸던 등을 꼳꼳하게 일으켜 세우고 절뚝이던 다리를 곧게 펴 ‘장애’와 자신을 분리하며, ‘장애’는 부정적인 성격의 은유일 뿐이었음을 일깨우곤 했기 때문이다. ‘일그러진 욕망이 깃든 뒤틀린 몸’을 훌륭히 연기했을 뿐, 그 무대에 장애가 자리할 여지는 조금도 없었다. 그렇게 역사 속 ‘리처드 3세’와 무관하게, 셰익스피어의 ‘리처드 3세’는 실재하는 몸들에 대한 속단을 승인하며, ‘보통과 다른 몸’들의 삶을 뒤틀어왔다.

2022년 11월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틴에이지 딕Teenage Dick>은 이러한 재현의



오랜 역사 끝에 드디어 찾아온 ‘보통과 다른 몸’의 항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계 미국인 극작가 마이크 루Mike Lew는 <리처드 3세>를 동시대 미국 고등학교의 학생회장 선거를 배경으로 각색하며 “리처드와 벅 역에는 장애인 배우를 캐스팅해야 한다. 장애인들은 존재하며, 함께 살고 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작가의 이러한 취지를 살려 국립극장은 ‘무장애 공연’을 표방하며, 지체장애인 배우 하지성과 조우리를 캐스팅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몸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방법론을 세심하게 운용했다. 시각 장애 관객에게는 FM 수신기로 폐쇄형 음성 해설을 제공하고, 수어 통역사를 배우와 일대일로 배치해 원활한 전달을 꾀했으며, 대사의 억양과 유사한 감각을 담은 자막을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점자로 인쇄된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이 모두는 공연을 풍요롭게 하는 일부였기에 비장애인 관객인 나에게도 무대 위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으나, 무엇보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은 것은 무대 밖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었다. 공연 시작 전 로비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중증 장애인 몇몇 분을 마주했던 것. 공연 내내 나는 궁금했다. 휠체어를 타고 경사진 무대를 누비는 하지성·조우리 배우를 보며 그 관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론 나는 절대 알 수 없다. 혹 극장을 떠나는 그들을 붙잡고 물었다 하더라도 단어 몇 마디 안에는 담기지 않는 감정이 있었을 터, 나는 끝내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저 ‘나’와 다르지 않은, 아니 사실 같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으나 못사람들이 ‘나’의 몸과 구별하지 못하는 그 몸들이 세 시간 동안 무대를 중횡무진하며 펼쳐내는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여 바라보는 그 풍광이, 부디 새로운 힘을 부여하는empowering

경험이었기를 바랄 뿐이다.

분명 극장 곳곳에 다양한 몸이 있었다. 소위 ‘정상 신체’라고 일컬어지는 몸들에 의해 지워지지 않은 ‘보통과 다른 몸’들의 ‘있음’이 생생했다. 허나 나는 ‘무장애 공연’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못내 애석하다. <틴에이지 딕>에서 항변하고 있는 몸은 리처드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극의 말미, 리처드로 인해 비극적 최후를 맞는 앤 마거릿Anne MargaretO 말한다. “이건 리처드 얘기”라고. 근데 “왜 항상 리처드 얘기”냐고. “난 셰익스피어 연극에서처럼, 여자들이 전부 물건이고 주인공 보조고 극적 장치일 뿐인 연극에서처럼 단숨에 이용되고 나중에는 잊혀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리처드 3세>에서는 현란한 화술에 농락돼 그와 결혼했다 독살당하는 캐릭터 앤이 <틴에이지 딕>의 마지막 장면에서야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셈이다. 왜 자신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disabled body’이 되었는지를 말이다. 남성들만이 무대에 서던 시대의 여성으로서 그녀 또한 이야기를 위해 실재와는 무관하게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지워지는 존재였다. ‘장애’가 작동해온 바로 그 방식으로 말이다.

<틴에이지 딕>이 <리처드 3세>가 품고 있는 낡은 이야기 공식을 내파內破해 성취한 것은 ‘장애를 (잠시) 없애는 것’이 아니었다고 믿는다. 낡디낡은 이야기의 공식에서 효과적인 극적 장치로 사용되고 버려진, 수사의 도구로 쓰이고 지워진 몸들의 항변을 통해, <틴에이지 딕>은—신체장애를 넘어—‘장애’의 작동 원리를 모파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극장 안에서 잠시 발생했다 휘발되는 유토피아보다 극장 밖 현실을 달리 마주하게 하는 작품이 더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이 정체성의 경계를 횡단하여 다종다양한 몸들의 연립聯立을 꾀할 수 있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COMMENTS

디자인이 파격적으로 변신했네요! 손에 쥐는 질감부터 바뀐 [문화+서울]의 변화가 반갑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필자들의 저마다 개성이 묻어나는 칼럼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편집팀에 전하는 한마디 매달 정갈하게 큐레이션된 월간지를 받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앞으로도 매달 우편함에 꽃힐 멋진 콘텐츠를 기대합니다.

박혜진 님

EPILOGUE

서울연극센터는 제게도 잊을 수 없는 곳! 기억 속 모습과 달리 너무 근사해져 조금 낯설긴 해도 꾸준히 명맥을 잇는 사업이 있고, 친근한 사람들이 함께해 4월 재개관을 한다고 하니 무척 기대되네요. 화이팅!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SPECIAL THANKS TO

재개관을 앞두고 매일 조금씩 더 예쁘게 단장하고 있는 서울연극센터 공간 곳곳과 사람들을 섬세하게 담아준 강민정 작가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문화+서울] 편집팀



POSTSCRIPT

10여 년 전에도 서울연극센터는 인기가 넘치던 곳이었다. 서울문화재단 시민기자단 1·2기로 활동하던 시절에도 매달 편집회의에서 가장 먼저 낙점되는 아이템은 서울연극센터 차지였으니 말이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부근이라는 지리적 위치도 한몫했으나, 가장 큰 매력은 무대 위 예술가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 아니었을까. 2012년 12월, 서울연극센터 개관 5주년을 기념해 열린 '연극배우 남명렬의 서재'에서 만난 배우의 진솔한 이야기가 여전히 선하다. '인기쟁이' 서울연극센터가 오랜 기다림 끝에 베일을 벗는다. 세련된 얼굴이 어쩐지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나 곁을 내주던 푸근한 마음은 그대로일 것이다. 3월호 개편을 마치고, 잘했다는 안도감과 잘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이 공존하는 한 달을 보냈다. 그런데 이달, 서울연극센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대화에도 그런 기분이 전해졌다. 시민의 발걸음과 연극인의 움직임, 이들의 활기로 북적이던 서울연극센터를 여전히 기억하는 이들의 기대와 부담을 가득 떠안은 듯한 기분. 한없이 투명해서 어른어른하게 그려지는 서울연극센터의 새 풍경을 조금 느긋하고 오래도록 지켜봐주면 좋겠다.

김태희 디자인이개 에디터



POSTSCRIPT

서울연극센터와 함께했던 직원들의 인터뷰를 읽다가 문득 웹진 '연극in' 초기에 공연 리뷰를 쓴 기억이 났다. 서울문화재단과의 첫 공식 인연인 셈이다. 당시 '연극in' 담당 직원은 현 [문화+서울] 편집 총괄로 다시 만났고, 전 [문화+서울] 담당 직원은 서울연극센터로 가서 4월호 'Focus' 기사 구성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으니 인연이란 참!

전민정 편집위원

POSTSCRIPT

개편 첫 호(3월호)를 낸 얼떨떨한 기분 속에서 다음 호를 위한 작업을 한소끔 하고 나니 어느덧 완연한 봄이다. 이쯤 되면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봄은 여전히 설레고 들뜨는 시작의 느낌을 안겨준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여는 서울연극센터 소식을 봄에 다룰 수 있어서 마음이 아주 좋다.

이번 호엔 특히 (구)문화+서울 담당자이자 (현)서울연극센터 홍보 담당자인 김영민 대리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선배로, 일적인 파트너로, 친구로 아낌없이 힘을 보태준 그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장예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좋은 의견을 전해주시 본게는 [문화+서울]을 일 년간 보내드립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청년의 시작 열아홉, 문화관람으로 응원!



서울청년문화패스란?

만 19세(2004년생) 청년들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사업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0만원 공연 관람비 지원

지원대상

2004년생(2004. 1. 1. ~ 12. 31. 출생자)

서울 거주 내·외국인 28,000명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기간

2023. 4. 19.(수) ~ 4. 30.(일)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